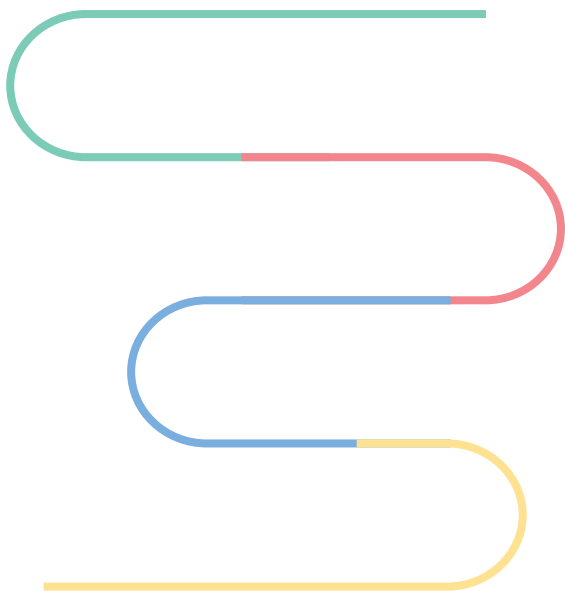


with COVID-19

# 은평 교육 콘텐츠,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다



은평구 교사 및 마을 강사 집담회 자료집



은평구



곶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은평 교육 콘텐츠,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다

-은평구 교사 및 마을 강사 집담회 자료집

with COVID-19

## 인사말

- 04 마을 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기록, 그 시간을 담다

## 1. 들어가며

- 10 발제1 코로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교육의 기회  
28 발제2 with 코로나 시대, 마을 교사의 역할과 비전

## 2. 의견을 나누며

- 40 교사 집담회  
혼돈의 시기,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64 강사 집담회 1차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콘텐츠 사업의 현황과 고충  
82 강사 집담회 2차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마을 교육의 방향성  
104 강사 집담회 3차  
마을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  
122 강사 집담회 4차  
마을 강사의 비전과 마을 교육의 진정한 의미 공유

## 3. 정리하며

- 146 최종 정리 워크숍  
집담회 이후, 마을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162 진행자 총평  
은평 마을 콘텐츠 발전 방향을 위한  
마을 강사 및 교사 집담회를 마치고  
168 자문 의견서  
코로나19와 마을 교육: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경계를 넘어

## \*별첨

- 178 은평상상컨퍼런스 '마을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다'

## 마을 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기록, 그 시간을 담다

2020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이 소중한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마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연결로 보다 나은 2021년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은평 교육 콘텐츠 사업이 8년차가 되어 학교와의 연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교과과정, 자유학기, 창의체험, 전환기, 방과후, 동아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강사들이 학교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아이들과 만남으로 마을 강사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지역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마을 교육의 장점인 건강한 관계망이 마스크 속으로 숨어들어 갔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개학의 연기, 비대면 수업, 주 1회 등교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드러난 학습 환경의 격차는 우리 모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학교 방역과 온라인 원격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소규모 대면 학습을 지원했고 ‘은혁이와 배우자’로 마을에서 다양한 틈새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강사 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잘 버티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을 강사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순식간에 80여 명의 마을 강사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그마저

인사말

이미경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운영이 쉽지 않아 4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집담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마을 강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이지만 이 내용이 이후 마을 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은평의 마을 교육이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은 170팀 320여 명의 건강한 관계망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교육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함께 성장하는 마을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정확히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이 다시 ‘멘붕’에 빠졌다.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post-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던 터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은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공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post-코로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지구 생명체이고, 지금의 문명은 인류가 단지 꿈을 잘 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peri-코로나<sup>1</sup>상태가 지속된다면 post-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상상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post-코로나에 대한 상상은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난 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일 뿐, 현재의 peri-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한 논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post-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그저 주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부분의 post-코로나에 대한

<sup>1</sup> pre-, peri-, post-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증상에 대한 처방 이전, 치료를 위한 처방의 과정, 처방 이후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접두어다. 지금 인류의 경제, 문화 전반을 흔들어대고 있는 코로나도 본질적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이러한 접두어의 사용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논의가 자신이 처한 신념이나 입장의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성애가 코로나 항체 생성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의 전체주의 국가로 회귀해야 한다면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익숙해진 선진국 시민들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sup>2</sup> 하여 post-코로나를 언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코로나를 기회 삼아 그저 평소 주장해 오던 자신의 신념에 손가락을 얹으려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디디고 있는 축발을 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각자 서로에게 상대방부터 먼저 발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통제의 영역 밖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는 총기 사고다. 하지만 미국은 총기보다 테러를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sup>3</sup>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일까, 아니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률일까?<sup>4</sup> 근대 인류는 필연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우연의 영역을 단지 눈에 보이는 수치로 계량

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늘 무시해왔다. 사실 post-코로나에 대한 논의나 주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근대적 정의’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합의 가능성’일지 모른다.

## 2. 근대교육의 함정, 실력주의(meritocracy)!

복잡하게 구조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분업화된 전문성에 입각한 주장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방해한다. 대부분의 주장에는 합의에 필요한 보편적 상식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특히나 근대교육은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성찰하기 위해서보다는 한낱 인간에게 주어진 전문성에 신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작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판사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인간이 만든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전문가라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단지 인간인 판사에게 독립된 헌법 기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맞는지, 나아가 우리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독립된 교육 기관’으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중세 이전의 교육은 사회화의 수단이었다. 귀족들은 보다 세련되게 노예를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배웠으며, 노예들이 귀족의 지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선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배워야 했다. 근대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발 기능의 탑재다. 부르주아 혁명에 성공한 시민계급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선발기능 강화로 이어졌다. “이제

2 “살을 금지하지 말라 독일 봉쇄조치에 1천명 항의시위”,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42015.html>>

3 9·11 테러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3천 명이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년에 평균 3만 명에 이른다.

4 2019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8년 1일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로 2020년 6월 14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277명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특정한 사회적 환경 - 귀족, 상인 혹은 수공업자의 자식으로서 - 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시민계급에게 만연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출생의 원칙 대신에 개인의 업적이라는 원칙이 관철된 귀족계급의 특권은 깨뜨려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상승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Giesecke, 2002: 28-29).” 교육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발기능의 과잉이다. 선발기능의 과잉은 실력주의(meritocracy)로 이어진다. 실력주의는 불평등을 책임을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한다. 내가 찌질한 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재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이다. 빙산의 일각은 전체 빙산의 크기 중 17%를 차지한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빙산의 구조이다. 빙산의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83%가 물 위로 떠올라 빙산의 일각이 될 수는 없다.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일본 중, 고등학생들의 행복 만족도가 95%에 육박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신의 계급적 지위가 혈통에 의해 결정되었던 중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근대교육은 이제 실력주의를 통해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근대교육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헤르만 기셴케’의 말을 빌어 한번 실력주의를 패러디해 보겠다.

“이제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는 적어도 ‘노오력’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교육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 입시 교육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력주의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은 더욱 고착되고 있다.”

### 3.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 ‘마을 속 학교’에 대하여

2012년 은평구가 추진했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교육 실험이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상호 연결의 결과라는 것이다.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조어이다. 이 조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노조탄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듯, 조어는 역설적으로 결핍을 내재한다. 즉 마을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교육이 마을과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자, 그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학교’라는 조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서 시작한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 이전의 마을학교는 대부분 제도화된 공교육의 대립점에 서 있었다.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책 제목이나, 민선 5, 6기 노원구의 슬로건이었던 “마을이 학교다”는 기존의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을 학교라고 명명함으로써 학교와 묘한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은평구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일반행정의 예산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바탕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호 연결을 꾀했다. 은평구청은 학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집행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가

마을의 교육 콘텐츠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구청-학교-마을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두 번째는 정책의 규모이다. 이전에도 혁신학교 등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과 협력하는 사례는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로 7억이나 되는 예산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 집행한 사례는 은평구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 최초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정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필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하는 어공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다. 226개 자치구 중 1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sup>5</sup>는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 확장되는 아이들의 요구를 마을과 학교가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감당하기 위해 시작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교육의 무게 중심이 학교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교육은 법적으로 교육행정의 사무다. 일반행정이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지점이다. 필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를 만들면서 그

5 지역에 따라 충청도 권역에서는 ‘행복교육지구’, 부산에서는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혁신교육지구에서 비롯하였으며 운영원리 또한 혁신교육지구와 유사하다.

취지를 제대로 제도에 담기 위해 공동 조례, 쌍둥이 조례 등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법제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동조례 제정에 대한 법제처 답변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공문, 자치법제지원과-1441, 2015).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쌍둥이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제처 답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주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규정한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공문, 자치법제지원과-1441, 2015).

법은 정의도 진리도 아닌 시대의 합의일 뿐이다. 법은 시대의 상식을 반영한다. 여성의 투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제도는 과거의 합의일 뿐이다. 제도로 굳어진 합의를 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은평에서는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이 반드시 교육행정의 사무가 아니라는 상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부연하자면, 시민의 상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굳어진 전문성의 이해관계이다. 교육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으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오히려 교육의 혁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중 압권은 역시 자

주성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비인격체인 교육에 자주성을 부여했다. 교육의 자주성이 이 시대의 고통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자주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까?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31조 4항).

#### 4. 코로나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코로나19가 촉매가 되었을 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생활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 불확실한 미래를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뉴노멀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질서를 의심하는 것이다. 니체가 중세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의 존재를 의심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대표하는 질서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pital)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계를 동경하며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등졌고, 추억이 묻어있는 곁목을 지웠다. 세계화의 균열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라 1988’를 보며 아무런 의심 없이 부르짖었던 세계화가 지워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정책을 펼쳐왔다.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이란 자본이 과잉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잉, 중복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과잉 소비에 방해가 된다. 또한 유행을 통해 멀쩡한 물건도 쓸모없게 만들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중복 소비를 부추긴다.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주체는 소비자인데, 소비주도 성장에서의 소비는 생산자인 자본이 주도한다. 핀란드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시도한 바 있는 기본소득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이러한 소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소위 경제성장률(GDP)이라는 수치를 통해 늘어난 파이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국가를, 기업을, 개인을 경쟁으로 몰아간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빵을 100개 생산하는 기업은 빵의 생산량을 200개, 300개로 늘려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며 성장을 할 수 있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더 많은 빵을 먹어야 하는데, 인간의 위가 아무리 커져도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한계에 다다르면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평당 100만원 하던 땅이 1,000만원이 되면 늘어난 땅의 가치가 경제성장률에 반영된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곧바로 양극화로 이어진다. 경제성장

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이다. 신자유주의의 침병이라는 IMF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위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2015년 IMF는 150여 개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며,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IMF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6</sup>

지금까지의 표준(Normal)이 세계화였다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은 지역화가 될 것이다. 자본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면 소비자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양극화로 귀결된다면 어떻게 파이를 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교육 분야에 대입해 보자.

첫 번째, 교육은 세계도, 국가도 아닌 교육의 현장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교육에도 지역(local)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교육의 주체가 교육의 제공자인 교사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학생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식이 고정되거나 서서

히 확장되는 시기에는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읽고(Reading), 쓰고(wRiting), 계산(aRithmetic)하는 3R이 교육의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보의 확장이 빅뱅 수준으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이 중심이 되는 4C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4C는 일방적인 주입의 방식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필자는 한국의 교육이 하루빨리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3주체론에서 벗어나 학생을 유일한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교육1주체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가진 ‘경험의 답습’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부-교육청-학교-학생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권력관계를 교육의 역할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 국가라는 집단을 위해 국민이라는 개인이 존재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라는 개인을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집단과 개인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권력관계가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역할관계이다. 권력은 수직적이지만, 역할은 수평적이다. 이른바 교육 분야에도 분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5.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언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결과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의 자유의지를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게, 실력주의가 작동하는

<sup>6</sup> 선재규. 2015.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6/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60612000009>)

근대교육 체제 아래선 교육전문가도, 시민도 행복할 수 없다. 2018년 핀란드와 덴마크로 교육 연수를 갔던 적이 있다. 난 핀란드 국가 교육위원회의 브리핑을 들으며 북유럽이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거대하고 척박한 땅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이다.

북유럽3국과 한국의 인구밀도 비교

국가	면적	인구	인구밀도(순위)
한국	100,387km <sup>2</sup>	51,635,256	515명/km <sup>2</sup> (16위)
덴마크	43,094km <sup>2</sup>	5,432,335	126명/km <sup>2</sup> (126위)
스웨덴	449,964km <sup>2</sup>	9,001,774	20명/km <sup>2</sup> (155위)
핀란드	338,145km <sup>2</sup>	5,223,442	15명/km <sup>2</sup> (162위)

불공정과 불평등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배제하고 나면 정작 필요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0명이 들어야 할 나무를 5명이 들고 있는데, 나무를 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 중 한 명을 배제하고 나면 10명이 들어야 할 나무는 결국 4명이 들게 된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리고 교육은 그러한 북유럽 사회의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단지 “거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이 있다. 교육(손가락)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달)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 선진국인 북유럽 사회는 보지 않고, 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교육

만 쳐다보고 온다. 사회가 권위적이면 교육도 권위적이 되고, 사회가 불공정하면 교육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 몰입한다. 혹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와 불공정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그 책임을 교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 시대, 벌써 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얼마 전 교육부에서 선정한 공주미래교육지구 컨설팅에 참석한 적이 있다. 공주미래교육지구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예산 반납을 걱정하고 있었다. 행사는 일반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보다는 주최측이 대중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한다. 지금은 행사 보다는 특정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자발적 프로젝트가 더 필요한 시기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확진자를 검사한 건 중앙정부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류는 일찍부터 생존의 문제 앞에서 연대와 협력을, 그리고 이익 앞에서 경쟁을 해 왔다. 불확실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평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첫 번째, 대규모 행사 위주에서 작은 단위의 자발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필자가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처음 제안할 때, 3대 원칙을 제안했다.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비교과 영역’, ‘마을과 학교의 상생’, 그리고 ‘콘텐츠의 질’이었다.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이 성공하려면 마을의 교육 콘텐츠가 학교에서 사용되어도 충분하



다는 것을 교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2014년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 설명회에서 콘텐츠의 질 대신 관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동안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을 운영해 보니 마을과 학교의 관계성보다 마을에 “비교과, 소규모, 사교육 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있는 그대로의 마을과 있는 그대로의 학교를 연결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빵집에서, 시장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삶을 배우는 것이다. 필자는 의도와 어긋났다고 해서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 윤리와 더불어 책임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념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신념의 결과가 신념과 어긋나게 이어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의도와 다른 결과는 결과의 탓이 아니라 부실한 의도의 탓이다. 필자는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비교과 소규모 사교육 업자들이 마을과의 관계성을 축적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 지향해야 할 두 번째는 학교가 원하는 수월성 교육이 아닌 마을이 잘 할 수 있는 관계성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색동에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관동, 역촌동, 응암동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는 대신 일상적인 관계의 축적이 가능한 인근의 학교와 보다 긴밀하게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은 주로 일방적으로 작동했다. 교사는 고정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였다. 1980년 소피 마르소를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로 등극시켰던 ‘라뭉’이라는 영화에는 당시 프랑스 중학교의 모습이 소개된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당시 프랑

스 중학교는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 교실에 교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듣고 싶을 수업을 선택해 교실을 찾아간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아이들의 권리는 40년 전 프랑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빅뱅의 시대에 언제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억압할 것인가! **세 번째, 코로나 시대 은평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은 지식과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서로 배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배우는 것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개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개인의 선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고통스럽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King Crimson의 “Epitaph”이라는 노래는 시끄러운 팀파니 소리와 함께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불협화음으로 인해 뒤에 나오는 협화음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은 배가된다. 분노는 애정의 끝자락이고, 증오는 기대의 맞은편이다. 긍정성과 부정성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닌다. 코로나로 인해 지구를 파괴하며 성장해 가던 인류 문명은 비로소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모쪼록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8년 동안 씁 없이 달려온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자료 (본문 참고 순)

- 연합뉴스, 2020, “삶을 금지하지 말라 독일 봉쇄조치에 1천명 항의 시위”, 『한겨레』 (4/26)〈[http: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42015.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42015.html)〉
- 기셴케, 헤르만(Giesecke, Hermann), 2002, 『근대교육의 종말』, 조상식 역, 내일을 여는 책.
-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순 역, 민음사.
- 채희태, 2019,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교육연구』 34집 제1호.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
- 대한민국 헌법
- 선재규, 2015,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6/16, 연합뉴스,〈[https: //www.yna.co.kr/view/AKR20150616061200009](https://www.yna.co.kr/view/AKR20150616061200009)〉

우리는 모두 코로나19<sup>1</sup>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꿈꾸었고, 혁신교육, 마을 교육의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주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우주여행을 꿈꾸던 세계인들은 가까운 나라조차 가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대란으로 잠깐 들었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는 잠깐이 아니라 깊이 길게 생각하게 하였고, 정부는 그린뉴딜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반에는 겨울 방학이 점점 길어지더니, 졸업식과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고, 새로 맞춘 교복은 입어보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뀌어 입학과 개학을 하게 되었고, 초, 중, 고 급별에 맞추어 번갈아 가며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반 학생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소수의 반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만큼 고충이 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교사 분들도 초반에 수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당황스러운 순간을

<sup>1</sup>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불려왔으나,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두산백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적응이 되어 학교도 수업재개를 시작하였고, 2학기 때는 많은 마을 교사 분들이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겪고 있고, 모두 적응되는 시간입니다.

## 2. 왜 준비된 마을 교사인가?

### 우리나라는 배운 국민들

재난상황에서 각 나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마스크 미착용, 사재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폭동, 의료의체계의 미흡 등 놀라울 정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사회 문화의 배경이 달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합리적인 사고를 선택하고 행동한 국민들입니다.

### 말하자면 배운 국민들입니다.

배운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70.4%이며, 이전에도 70% 정도를 꾸준히 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의 최강국으로 활발한 정보교류, 평생교육의 발달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과잉 배움과 학력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교사 분들 모두 꾸준히 시대에 대응하여 배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진학률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상징성일 뿐이고, 학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배움의 보편적인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마을 교사의 질

2012년 은평의 실험으로 시작된 교육 콘텐츠 사업과 은평의 교육 콘텐츠 사업이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늘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마을 교사의 질’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학력과 배움의 증가로 특정한 조직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자신의 영역에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을 교사의 질’의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해소하고자 작년에는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만나는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다시 확인하고,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교사의 질’은 자격이나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되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 왜 마을 교사인가?

위에서 밝혔듯이 마을 교사는 자신의 영역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활동 반경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지역중심으로 활동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 즉, 우리 동네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옆집아이에서 우리아가 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마을 교사들은 삶과 활동으로 축적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초연결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진실된 정보’의 연결입니다. ‘진실된 정보’를 증명하는 것은 ‘경험’과 ‘경험에 대한 축적’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진실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양이 많지 않아 한정된 정보 안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렸다면 정보화 시대의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미스매칭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을 사용해본 경험 즉 리뷰를 보고 물건을 구매할지에 대해 선택을 합니다. 물건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본 경험이 축적되어 물건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A.I는 그러한 소비자의 구매경험 패턴을 분석하여 기업에게 전달합니다. 마을 교사들의 축적되어진 소중한 경험은 ‘진실된 정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집담회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방향성, 마음가짐, 동기부여, 기능과 기술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3D프린터나, A.I나 V.R이 다가 아니라 마을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플랫폼(중간지원기관이나 연결을 하는 역할)을 통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장소, 기관에게 연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할 수 있으나 활동이 없는 경우 죽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렇게 매년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살아있는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어졌을 때 일상에서도 강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은평의 온라인원격지원사업이 그러한 예입니다. 로그인도 못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습 멘토를 찾아야 했는데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고, 시시각각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등교, 교육, 식사 및 식사처리, 사진 등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였고, 훌륭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3. 온라인 교육의 한계

온라인 원격교육은 미래교육으로 여겨지며,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사태로 준비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염병 이후의 교육관련 포럼에서는 공교육이 요즘 잘나가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처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는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은 학교의 기능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이자 학부모들의 목표인 대학입시를 위한 유명한 모 입시인강 업체 실제 완강률은 20~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MOOC가 처음 선보였을 때 세계 유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의 교육평론가 제프리 셀링고가 2014년 펴낸 [무크U:온라인 교육의 중도 포기 이유]에서 무크의 실제 성가를 점검했는데 학습동기가 강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5%의 자발적 학습자들에게만 효과적일뿐 대다수 학생들에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겨레 구본권, 유레카, 20.08.12)

학교 교사들 역시 온라인 교육 실시 후 교사들의 피로도도와 학생들의 무력감이 증가되었음을 호소하였고, 얼마 전 중간, 기말고사에서 중간층이 사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계층은 학원 또는 개인 가정교사를 들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해 나가거나 개인형 맞춤형학습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반면 중간과 저소득계층은 학습의 질이 더 떨어지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sup>2</sup> 또는 썸머 슬라이드(summer slide)<sup>3</sup>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무력감을 학생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통제능력, 자기주도능력은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을 교사들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 흔히 우리말로로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이란 말로 요약되며,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뜻한다. 1969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처음으로 주장.

3 썸머 슬라이드(summer slide) 여름방학 이후 성적이 하락하는 것.

#### 4.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교육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교육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이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좋은 대학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굳이 그 장소까지 갈 필요가 없어 지역인재의 이탈이 저절로 방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상상해 보기

상황과 시대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교육의 불평등은 곧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대면 교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교사, 학부모의 피로도 증가, 학생의 무력감 등 학교의 주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보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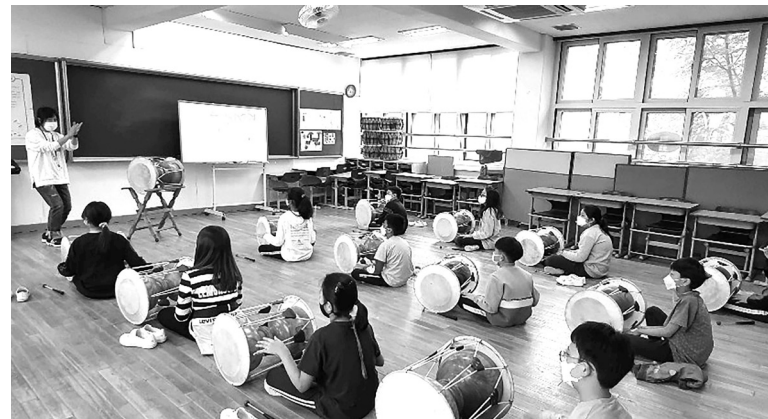
현재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창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대면 교육에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협력하는 방법,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분리보다 마을 교육의 통합적 돌봄과 교육을 품앗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감염병은 공공의 공간이 제일 먼저 문을 닫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해 보는 것, 지역인재 이탈방지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 등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의 새로운 정의

학교와 마을의 역할이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살짝 뒤로 하고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변화하기를 희망했던 간절한 국민의 소원이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교육의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2

의견을 나누며

## 혼돈의 시기,

##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코로나 시대 교육 콘텐츠 사업 교사들과의 집담회

### 교사 집담회

일시 2020년 8월 7일

사회자 최승국(나우엔 연구소 대표,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발제자 전경원(참교육연구소장, 강민정국회의원보좌관)

참석자 이미경(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안혜란(은평구청 시민교육과마을학교팀장),

은평구 내 학교 교사 9명, 마을 강사 5명,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직원 7명

**이미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 상황으로 혼돈의 시기를 보내며 직접 청소년과 교사 분들 이야기를 듣고, 21년도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 보자는 차원에서 집담회를 준비했다. 이 자리는 센터운영위원회, 혁신교육실무협의회, 콘텐츠 교육실무협의회, 그리고 참여했던 교사와 마을 강사 분들과 심도 깊게 근황과 고민을 이야기해 보고자 준비되었고, 오늘을 시작으로 총 11회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집담회는 나우엔 연구소 대표이자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인 최승국 대표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해주신다.

**최승국**(사회자 이하 사회자): 즐겁게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모였다. 진행순서는 발제 후, 질문과 응답을 하고 전체의견을 들을 것이다. 현재 현안과 본인들의 대안, 앞으로 각자의 콘텐츠를 마을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나눌 것이다. 이곳에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편하게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바로 발제를 진행 하겠다. 선생님들께서는 발제를 들으시되,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지역 사회의 현실과 학생들의 현실 세계와의 접점,

### 실생활과 연결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전경원**(발제자 이하 발제자): 하나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연서시장과 관련된 과제를 낸 적이 있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문제의

식은 하나고라는 학교 자체의 특수성과 일반고 학생과 다른, 선발로 온 학생들만의 다른 성향이다.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외출이 가능해서, 제가 낸 과제는 주말을 이용해 시장에 가서 세 달 정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백화점과 마트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과 함께 재래시장에 가는 것,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장사하신 분을 섭외해서 인터뷰대상 찾되, 찾아가는 횟수는 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눈치 없이 인터뷰 요청을 하면 응해주지 않을 것이니, 그분들의 일을 도와주며 인터뷰 부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전기문을 작성해 참여자 분들께 전기문을 완성해 드리고 증정식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 과제를 줬다. 제 취지는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못 가니 연서시장을 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와 계층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과제가 끝난 세 달 뒤에 학생들의 ‘세대, 계층, 지역사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발표 이후 공통적인 고충이 인터뷰 섭외과정 자체의 힘들이었다. “얘들아, 나는 인터뷰할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알아봐라.”같은 말들이 아이들에게 거절의 상처로 기억되었다. 아이들 역시 내가 모르는 부분,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 하는구나’를 느꼈다.

어떤 여학생은 사례를 발표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인터뷰 대상인 할머니 이야기와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연계해 발표했다. 그 할머니는 노량진 수산시장 끝집 생선을 사와 연서시장에서 파는 분으로, 인터뷰하러 찾아갔을 때 통로에서 벽 쪽으로 돌아앉아 네모난 김치통 하나만을 두고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적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생선 좌판을 하며 아이 둘을 키

웠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할머니의 삶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며 아들 둘을 키워 선망하는 대학을 졸업시키고 취업까지 잘 되었는데, 왜 30년 넘게 계속 이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할머니 꿈이 무엇이나 여쭙 보자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비행기 타는 게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 펜스 앞에서 엄마에게 물건을 전달받고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외동딸이고, 엄마도 대학을 나와 훌륭한 커리어우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자신이 된가 필요해서 그 야밤에 차를 몰고 와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에 대해 인터뷰했던 내용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다며 어머니의 삶을 연계시켜 눈물을 흘렸다. 이 학생과 비슷한 사연으로 발표하는 학생이 무척 많았다.

저는 국어과수업 담당으로 전기문 관련된 성취기준이 있었다. 처음에는 ‘전기문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물음표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의 결과물에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감동과 ‘어떻게 묵묵히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깨달음이 적혀있었다.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마을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작년 11월에 의미 있는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KDI에서 전공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를 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 미래사회에 시



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에 41.9%가 ‘시민인성’이라 답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것이 ‘기성세대가 초중고 교육을 다 마친 부분들이 뭐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의 질문에 55% 이상이 삶과 교과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유,초등교육을 13년 이상 받았지만, 내가 받았던 교육내용이 실제 살았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해달란 응답이 13.7%인 것을 보면 비단 저 혼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정기교육과정에서 받은 교육이 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지?’라는 문제의식을 일반 국민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제한된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인지, 실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마을 공동체 콘텐츠 개발할 때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실제 세계와의 소통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의 깨달음이 있었다.

자료 첫 장에 보면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썼지만 저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최근 저는 온종일 돌봄 교육과정 관련 법안(강민정 의원실)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어떤 법안을 낼 때마다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급식법을 당연히 다 찬성할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법안엔 교사들이 포함이 안 되어있다. 급식 종사하는 분들이 제공하는 급식에는 학생과 같은 정기교육을 받는 대상들을 위해서만 적용이 되어있다. 법안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분들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

런데 갑자기 영양사협회에 ‘급식도 교육이다 당신들이 교육이 필요하냐?’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고 돌봄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눠지는 게 맞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위축이 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하지만 돌봄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다.

**사회자:**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고민을 화두 형식으로 던져주셨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바란다.

**센터장:** 제공된 자료의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제공된다 하는데, 실제로 학교교육이 지식전달 위주로 치우쳤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온라인 교육 형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 궁극적으로 개인형 맞춤 교육 형태로 가야, 학생수 상한제 도입과 수업시수 법제화 필요

**발제자:** 학교교육의 미래 형태의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하겠다. 현재 학교교육은 세 가지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산업화시대에 표준화로 통용되던 때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을 제공받아야 했다. 『편견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표준화된 교육으로 수업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과연 대



량생산시대에 맞는 표준화된 과정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이었나? 미국의 마이클무어 감독이 교육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SAT와 같은 미국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과도한 경쟁으로 교육의 본질이 묻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핀란드에 갔는데 학생들이 나무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수업시간에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아이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냐?” 하니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놀면 벌레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교육 아닌가? 이 나무가 뭐냐? 종이 뭐냐? 하는 게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냐?” 라고 되물었고, 감독은 충격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시대에서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이 고교 학점제이다. 이것을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경기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상태이다. 마지막 3단계는 개인별 맞춤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순차등교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기본은 절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교육과정은 일정 부분 온라인으로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 과제에 따른 토론이나 프로젝트는 등교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럴 때 개인에 맞춘 일대일 지도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 개인에 맞춰 일대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 개인형 맞춤형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 정부가 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 현안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도권 과밀학교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1:1지도는 절대 불가능하다. 상한제를 도입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수업시수 법제화이다. 초등학교가 16, 중학교가 14, 고등학교가 12 시간의 주간 수업시수에 맞춰 20명 미만으로 하면 교원 충원과 교육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교육부가 계속 요구한다. 특수교육은 4인 1실이 법제화되어 있다. 평수는 66제곱평방미터에서 4명이 정원이다.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몇 명이 적정인지 답변해 달라 하지만 저희는 답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답변하는 순간 기획재정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원충원 서울시 인원이 반 토막이 났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 배정 인원 제출해라 했더니 서울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연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가 재정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자:** 학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마을콘텐츠 관련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온라인 수업 대체,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 힘든 상황

**이희숙(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 일단 학교마다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교육과정 평가는 온라인 학습법 내용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의 교육 격차가 심했다. 1학년 처음 등교할 때 학교에 적응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학습 격차가 벌어진 상태라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생님들은 온라인 자체 제작으로 진행 하는데, 20분짜리 콘텐츠를 만드는 데 4시간 정도

소모가 된다. 아무래도 디지털이 익숙지 않은 선생님들과 기술적인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로, 영상 전문가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져 학생들 또한 집중력과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이 주 1회 딱 하루다 보니 지식 중심의 형식적인 수업이 진행되어 아이들도 학교에 나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1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급 전체는 주 3회 등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3:2로 진행하여 등교 중심이 되고, 온라인 수업은 등교수업의 부수적인 것으로 운영되며 정상화 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전체 학생이 나오게 되면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방역의 안전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혁신학교여서 문예체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진행할 수 없고, 2학기부터 문예체 수업을 할 예정이다. 방과후 수업은 서울시 확진자가 제로 상태가 될 때 하고자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체험 학습은 전체 중단이 되었으나 2학기 때는 버스타지 않고 도보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기준을 잡았다. 21일이 개학인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로나로 학교폭력은 줄었으나,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조정기(상신중학교 교사): 저는 학생부장인데 코로나 덕분에 ‘학폭’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공립학교가 많다보니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1시 정도까지 단축 수업을 6,7교시까지 하고 끝나면 시간이 짧다. 2학기는 온라인으로 간다. 이는 선생님들이 평가기준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도가 10~15분밖에 안 된다. 아이들이 아예 수업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에 학원이 번성하고, 아이들은 지쳐간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면 부모들 간의 네트워크와 학원선생님과 상담한다. 이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본다. 불교적 용어로는 깨달음일 텐데, 아이들도 활동과 변화를 통해서 ‘어 저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 쪽으로 가는 것 보단 의식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중심의 외적인 개방통로를 많이 높여서, 대학 입시위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때, 교육의 문제점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고 싶다. 김창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 온라인 교육으로 벌어지는 격차, 학교만으로는 힘들다

### 마을이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창수(신도고등학교 교사): 신도고등학교에서 교육기획부장을 맡고 있다. 학사 일정이 15차례 바뀌었는데 얼마나 바뀔지 교육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1,2학년은 격주로, 수능 끝나면 그 반대로 등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수업과 평가, 수행 등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대책팀을 꾸려 선생님들이 판단하도록 질문을 했더니 85%가 실시간 화상수업방식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3학년은 EBS 온라인 클래스와 연결해서 학급별 시간표 그대로 수업을 한다. 50분 10분 수업으로 가다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힘들었다. 수업 자체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수업은 지치긴 해도 얼굴 보며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온라인은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는 장점이 있다. (일동 웃음)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다. 어떤 곳은 오전 오후로 해서 매일 나온다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50분 10분으로 하다 보니 너무 지쳐서 쉬는 시간을 늘려, 지금은 40분 수업에 15분을 쉰다. 이렇게 5분 쉬는 시간을 늘리니 의욕이 생기고 선생님들도 편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 점점 코로나 면역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져서 다시 4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바뀌는 상태이다.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아침에 온라인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다 출석 체크를 한다. 학급회의와 선거도 온라인상으로 진행했

다. 고민스러운 것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라 1,2학년 따로 할 수 없으니 3학년 먼저 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걸로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있다. 수행평가가 제일 문제다. 과제형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다 보니 평가할 시간이 없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계속해서 몇 퍼센트를 해야 한다는 걸 놓지 않아서 어려워진다. 물론 최근에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다.

저는 마을학교 하면서 고민이 학교는 학교에 집중하고 정부는 물적, 인적 자원을 학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을이 안 움직여주니까 학교에서 나눠 하고 있는데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마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과정을 되도록이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온라인 교육을 하면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선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보면, 마을에서 같이 대안을 찾는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자: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 현재상황은 긴급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된다면, 현재가 정상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학교가 마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는 현재 학교 상황과 교육 콘텐츠의 고민들, 두 번째는 2학기부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온·오프라인이 어떻게 만날지 이야기할 나눠보겠다.

## 질 좋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동희**(선일여자고등학교 교장):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교육이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대면 수업을 기다리며,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방식의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변화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직면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한계도 존재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앞 둔 고3 학생들에게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대면수업으로 보완을 해야한다는 학교의 입장이 있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진행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선생님들 집단의 특징은 애써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수업이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디지털에 낯선 부분도 있지만, 우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선생님들이 EBS 강사처럼 잘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선생님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이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1학기 정도는 기다려 준 것이다. 2학기부터 한 학기 지났으니 잘 하겠지, 하며 바뀌길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죄송하지만 선생님들께 수업준비를 잘 해 달라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생존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는 고교학점제 시험학교이기도 하고, 은평구와 서울시와 연계가 되어 현재 방학기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나와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다, 대학교수님을 초빙해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일부도 나와서 협력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2학기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를 지원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응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 비교과부분에 대한 통합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남요섭**(상신중학교 교사): 코로나 시대 학교는 비교과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학생부에 있다 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 안전교육, 인성교육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학교 밖에서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도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가 과연 괜찮은 콘텐츠일까? 학교마다 내용과 깊이가 차이가 있어, 비 통합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7대 안전 수칙이라든지, 생활지도 교육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부담이 덜 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생활지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같이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 돌봄과 방과후가 학교로 들어올 때 늘어나는

### 교사의 업무에 대한 고민

고경심(서울신도초등학교 교사): 신도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저는 교육이란 전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마을이 학교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업무를 하며 교육부와 교육은 한국에서 참 제약이 많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도하게 생각하면 교육부를, 교육이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결하고 조율하고 고민해야 마을과 학교가 좀 더 이해에 맞게 소통할 수 있다. 아까 ‘돌봄의 활동을 마을로 돌리겠다’ 하는 게 사실은 돌봄이 학교로 들어올 때, 그런 고민 없이 들어왔고 방과후 학교 역시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더 많은 곳에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돌봄과 방과후가 학교로 들어오면 선생님의 일이 된다. 교사가 그 업무를 감당하면서 수업 부분이 제한받고 있고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 돌봄과 방과후가 교사들의 업무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돌봄은 학교 운영과 별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 이걸 누가 담당할지 고민 없이 들어왔다는 거다. 강사를 뽑고 강사비를 지급하고 애들을 모집하고 이 모

든 것이 교사에게 업무의 연장이다. 지금은 물론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담당 교사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꿰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선 그렇다.

### 방역과 소독, 책임과 부담 등으로 아쉬움이 크다

진세영(서울상신초등학교 교사): 저희의 경우, 교육 콘텐츠는 2학기로 미루고 학교에 들어오는 원격 수업 지원과 국악 프로그램은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강경하게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한쪽이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교육 콘텐츠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인데, 단체로 하는 원래 방식으로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과 소독, 책임, 부담 등으로 아쉬움이 크다.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

### 온라인 수업, 상호 피드백이 부족하다

문정희(신도고등학교 교사): 저희는 콘텐츠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다. 온라인 수업은 행정업무 없이 수업을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많다.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싶다. 수업의 핵심은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온라인 교육에는 어떤 상호 피드백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피드백이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부모가 해야 하는 상황에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한 명씩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40분 수업하면 40분이 피드백이다. 3-4시간 수업하면 이후 3-4시간이 피드백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마을이랑 연계를 원한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은 마을이 코디를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다. 마을은 학원도 교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가능하다 생각한다. 마을은 온라인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기보단 마을이 어떻게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 어느 시점에 들어오면 좋을지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다.

#### 마을의 돌봄 기능이 순환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희숙**(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는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절대적으로 교사들이 마을과 협력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혁신교육과정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다보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복지대상 아이들과 기초 대상 가정 관리와 학부모들과 만나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펴보면 지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인력이 있다. 이 분들이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할 때, 선생님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삶과 교육되는 매

개체가 되면 좋겠다. 이는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이해도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촉매제가 필요한데,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학교 후의 삶이 학원 아니면 가정으로 방치되는데, 방과후 학교는 언제까지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돌봄교실도 사실은 한 반 25명을 몰아두고 하는 건데, 마을 곳곳에 공간 확보가 되고 마을 어르신이라는 인력자원이 단순한 돌봄 기능을 떠나서 각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아동센터는 25명 정원이고 기초수급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공간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이후의 삶이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지원금과 같은 관계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지역의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가정까지도 연계해 정상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인프라가 지원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습부진 아이들을 지원하고, 마을 곳곳에 돌봄 기능이 살아있다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자:**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필요한 관계맺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공영역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를 밖으로 보내는 개념보다 학교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학교와 진행이 안되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마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방식과 시간을 조절하며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센터장:** 특히 교육격차를 협력해서 삶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했

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원하는 방법과 수요가 확인되면 좋겠다. 맞춤형으로 연계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학급당 15명이 안전한 게 아닌가 싶고, 교사 분들이 아이들에게 개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민청원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고, 이것이 하반기에 국민적 과제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 최종 질문 마을과 학교의 만남, 교육 콘텐츠의 역할은?

현재는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었다고 본다. 문학은 되는데 논술은 어렵고, 이럴 때 마을에서 학교 수업에 들어와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겠다. 현재는 이들을 강사로 모시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수업에 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강요할 수가 없다. 일대일과 피드백 온라인 사설업체가 떠올랐다. 돈을 내고 피드백을 주고 받고 뭔가를 하는 것에 저는 기꺼이 마음이 열린다. 유튜브 같은 형태로 진행하면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인터넷 강의를 보여주는 게 문제 같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강사들의 실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나 흥미 유발이 가능한 짧은 영상으로 인강 키트를 만들어 일대일로 짧게 한다거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콘텐츠 고민은 작년에도 했다. ‘학교가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를 안 돌봐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관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학교에 이야기 했다. 지금 마을 콘텐츠가 비중이 높다. 초등학교를 들여다보면 자료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노동교육 이런 것은 물론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을에 대한 어떤 특성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를 선생님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리고 콘텐츠 강사들이 마을 곳곳에 소규모로 수업을 하고자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사 없인 안 된다 해서 힘들 때도 있었다. 사실상 마을이 수업에 질적으로 높게 들어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의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걸 마을에서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학교 학생들이 가까이 걸어가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들 같은 것. 방과 후에서 악기나 보드게임을 배워서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현재 잘 다듬어진 콘텐츠들이 나누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못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콘텐츠가 있으려면 교육과정 내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교육과정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학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어떤 콘텐츠를 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를 학교가 신청을 받아 하는 방법이다. 학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결국 행정과 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해야 마을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 내 마을 강사 분들이 진행 하는 건 제한적일 수가 있다. 더군다나 현재 교육과정도 제한적이라 진도 나가기도

벽차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참여하지 않겠냐며 마을사람들이 연락이 온다. 그 프로그램에 1박 2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면 인제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이 많다. 그래서 이를 조금 과감하게 런칭해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1박 2일이 될 수 있다. 시흥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1박 2일에 개인 부담금 1만 8천 원 정도 내서 다녀왔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봉사시간을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가능하다. 좋은 콘셉트를 잡아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할 것이다.

저는 창의예술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여기서 멀티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이 개설되면 좋겠다. 예술 쪽은 창의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콘텐츠 개발이 많이 돼야 한다.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고등학교는 방과 후 보단 교육과정 내에서만 진행된다. 가정과학에서 가정실습을 하는데, 전통 떡을 만든다 하면 지역 내 떡 장인을 모셔서 12클래스를 다 들어간다. 방과 후 시간을 뺏기지 않아 다들 좋아한다. 마을에서 누군가 하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들어와 임팩트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학교와 이야기할 수 있는 팀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콘텐츠는 일정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수업시간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온·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드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원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절실한 부분이며, 이번 기회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마을 오케스트라 같은 인력들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센터가 중심이 되어 이분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교육활동의 교환을 통해 이런 역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 오래 진행되어 공동체성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인데 콘텐츠의 인적 수요들이 필요하다. 학교의 집단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좋겠다.



##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콘텐츠 사업의 현황과 대안

교육 콘텐츠 사업 강사들과의 집담회 1차

### 강사 집담회 1차

일시 2020년 9월 1일 화요일 10:00~12:000

사회자 최승국(나우엔 연구소 대표,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발제 채희태(사회혁신연구소 연구위원)

참석자 이미경(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마을 강사 11명

\* 마을 강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 코로나 시대  
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든 학교가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코로  
나로 인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1년  
계획해야 할 시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이것을  
몇몇 사람의 논의가 아닌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집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  
리를 통해 40명 정도 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을 교육이 어  
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교육의 기회’ 1부 발제로 갈음)

최승국(사회자 이하 사회자): 8월 13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집담회를 했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마을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주셨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유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 콘텐  
츠를 활성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나눠 볼 생각이다.

상반기엔 마을 교육 콘텐츠가 아주 활발하게 기획되어 있었는  
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  
각된다.

대부분의 수업이 중단된 상태,

온라인 수업 패키지 제작으로 좋은 반응

한은: 저는 유치원에서 방학 수업을 하고 있다. 1학기 때부터

시작하긴 했었는데 전혀 수업을 못 했고 7,8월 달에는 몇 몇 유치원에 수업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수업을 진행하던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휴원을 하고 아이들이 안 오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것이 학교나 유치원, 병설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가 되면 외부 강사의 출입을 못 하게 해서 아이들이 등원하는 것과 별개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인:**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 약속했던 수업이 2학기로 스케줄이 변경되고 있는 상태이다. 제가 소속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동영상 수업을 찍어서 보내고 패키지를 만들어 학교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을 한두 군데 중학교에서 진행했고, 반응이 좋아 더 진행을 하고 있다.

1학기 연기 발표 후, 학교 방과후 수업은 외부 강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라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다.

**한은:** 학교 방과후는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어서 쉬고 있다. 돌봄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가는 학교들은 다 수업이 중단되었다. 다행히 다른 학교에서 방학동안만 잠깐 수업을 해 달라 해서 8월에만 진행을 했다. 고정적 수업은 다 중단이 된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연락이 왔다가 제 수업은 온라인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거절하는 연락도 받았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하는 9월 달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자:** 그럼 혹시 1학기 때 미뤄왔던 수업이 2학기로 연기하

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은:** 전혀 없다. 방과후는 아예 학교에서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연락 없는 상황이고 외부강사는 출입이 힘들다고 했다. 진행하는 학교는 있지만 그 학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남기:** 저도 지금까지 1학기 때부터 수업이 연기가 되었는데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다. 빨리 진행이 되어서 다음 달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 온라인 수업 요청 많아,

### 모의실험 테스트 등으로 온라인 수업 기틀 마련

**양지:** 저는 1학기 때 있었던 수업들이 계속 연기됐다. 그래도 1학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와중에 선생님들께 온라인 수업을 해보자 제의가 들어왔다. 40명 정도까지 진행했고, 수업을 해본 어머니들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멋모르고 시작을 했다. 강사들은 강의료로 생활해야 하는데, 강의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만드는 쪽으로 가보자고 해서 함께 모여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모의실험 테스트를 하며 온라인 수업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쌍방향 수업은 아직은 시기상조, 적응 기간 필요하다.

**김선:** 1학기 같은 경우는 1-2학기에 걸쳐 초등학교 수업이 예정된 때에는 짝수로 등교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포기를 한 상황이

있었다. 2학기는 중학교는 자율학기제로 해서 열람수업으로 바뀌어 수업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하다. 저는 일단 영상자료를 만들어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나 성과보다는 지금의 라이브 수업이 아이들이 적응하기엔 시기상조인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될 지 궁금한 상태이다. 개인적 수업을 하는 경우는 쌍방향으로 화상수업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콘텐츠 수업은 한 번 정도 해봤다. 자율학기제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김현:** 교육 콘텐츠 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들은 9월로 미뤄져 미정으로 되어 있고, 5월 정도엔 수색초등학교에서 저학년 10명 정도씩 4일 정도 수업을 하고 왔다. 나머지 학교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은 재료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 만나서 하는 것보다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화면상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게 어색하지만 지금은 적응 중에 있다. 일단 현재 작년처럼 아이들을 만나 수업하는 기회는 적은 반면에, 온라인 수업 자체에 적응해가고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성:** 초등학교는 2학기 9월 이후로 연기가 되어 수업 시작을 못했다.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는 긴급 돌봄으로 들어와서 소수인원으로 5~6명, 제일 많은 수업은 8명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2단계 되면서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학부모들 수업을 했었는데, 거리두기나 발열체크 철저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

다. 공연에 관련된 수업이라 대면으로 진행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조금씩 두고 진행하고 있다.

**박혜:** 저는 공예 강의로 방과후 콘텐츠를 지원하게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1학기 때 진행하기로 한 수업들이 연기되어 2학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미안하셨는데 저는 괜찮으니 저는 어떻게든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온라인도 할 수 있다 했지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공예 분야이다 보니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도움을 직접 줄 수가 없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센터가 아예 없어져서 많이 아쉽고 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과

### 외부 강사 출입 허가를 교육청에 요구해야

**사회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수업을 거의 못하거나 일부 시도를 하는 분도 있고 분야를 넓혀 가고 있는 분도 계신다. 공통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 이미경 센터장님께 온라인 수업 관련 교육현안이 없는지 여쭙보겠다.

**센터장:**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요청한다. 저희 마을 교육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소규모 대면수업이 원칙이란 입장을 가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한 현실을 만났다. 저번에 온라인 수업 진행방식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온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센터 지하 1층에 조성 중에 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강사 출입불가 방침이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게끔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학교 안에서 작은 규모로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측과 모색 중에 있다. 이런 것이 교육 콘텐츠를 전환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사회자:** 은평이라는 공간에서 마을과 학교와 연계하고 마을 콘텐츠 사업과 같은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당사자로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한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다가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과후지원센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박혜:** 개인적으로 학교와 기관을 뚫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다. 방과후 수업으로 학교에 들어갔지만, 은평 뉴타운에 살면서도 방과후센터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아까 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잘 조성돼서 활용되었으면 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문화센터처럼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 한다. 예를 들어 동아리를 소규모로 진행한다든지, 은평구에 있는 학교 아이들끼리라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강사들도 같

이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연:** 방과후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과 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수업시간 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해결해줄 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2학기 때 수업이 어떻게 될지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회자:** 사실 센터의 공간부분은 별로 넓진 않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이라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 같다. 은평의 다른 공간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에 제안을 드린다.

**신성:** 지금은 많은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다. 은평구에는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 소규모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인다. 제가 방과후로 가는 학교는 1교시부터 수업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게 시간을 달리 배분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소나 시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사회자:**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 장소가 열리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하지만 은평구와 협치 관점에서 논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성:** 저 같은 경우 아까 온라인 경우를 말씀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걸 교육하셨다 하는데, 저는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 교육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서 진행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당장 2학기에 수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온라인 강의로 갈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 하면 센터에서 규제사안과 같은 것을 메뉴얼화 해서 배부해 주면 좋겠다.

**사회자:** 지금 온라인 수업이 대세게 되긴 하겠지만, 잘 진정되어 1단계로 간다면 소규모로 될 수 있는 훈련도 중요하다. 1학기에 기획한 것을 미루지 말고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도 마을 콘텐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함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센터에서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교육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김현:** 저는 특히 공예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대면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아이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고민했던 것보다 수강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올해 그리고 이후에 지금처럼 비대면 상황이 이어져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방과후 지원센터가 강의 관련 정보제공을 해주면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선:** 일단 지금 현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오류 사항

은 작년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예산을 받았는데, 작품을 만드는 활동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은 도구 공유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사실 비용이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 문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고려해주면 좋겠다.

**사회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구청이나 학교는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어 예산을 짜면 변경이 안 된다. 내년에는 그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

####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강사들의 계약 기간 조정, 온라인 수업을 대체할 소규모 수업

**양지:** 먼저 저희가 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이 미뤄졌으면 저희 계약 기간도 미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온라인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활용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 일단 장비 마련부터 시작해서, 당장 수입이 없는데 준비하기 힘든 분들도 많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대별로 신청을 받고, 파트별로 언제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하면 좋겠다. 마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유튜버를 키워내고 있다고 한다. 은평도 빨리 스튜디오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 중요한 수업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저도 온라인 강의를 생각했지만 선뜻 처음부터 손을 대기 어려워 시작을 안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 사업자를 따로 하면서 학교 측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방처럼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되면 좋겠다는 학교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6-7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업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겨 손만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장소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저의 주 일은 피부 관리이고, 화장품 관련 석사 공부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전화 주셔서 올해는 세 건 정도 되었지만 수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쉽다.

#### 대면 수업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노하우 공유

**홍남:** 저는 강사 3년차가 되어,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수입이 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 일이 80% 줄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콘텐츠가 어떻게 온라인에 적용될지 감이 잘 안 온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하게 될 수업은 오프라인 형태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온라인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본인이 가진 콘텐츠를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셨는지 궁금하다. 사실 지금은 그런 정보가 필요

한 상황이다. 저는 마을 방과후가 세 개 정도 되었는데, 마을 방과후를 통해서 연결된 것이 내년 2월까지 수업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회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코로나 시대에 이와 관련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금 더 폭넓게 마을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이인:** 저는 지금 의문이 드는 게, 학교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서 연계해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이 은평에 살고 있지 않아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 아까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은평의 방과후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도 그것인지 궁금했다. 제가 은평과 마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쪽이 지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결국 올해 수업이 지연되어 수업을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리가 잘 안되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한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온라인에서 연계를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되다보니 2학기 들어서 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 동영상상을 만들어 보내고 3시간 정도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은평 방과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과학수업이었다. 코로나 초반에선 두 달간 대면수업을 했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며 외부강사는 출입이 무기한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야길 듣고 있는 상황이다. 제 생각에 유튜브로 수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자신들이 컨트롤해서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저학년 일수록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지원 사업이 뒤로 밀려서 계약서는 벌써 작성을 했는데, 수업 계획 이행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실감,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

**사회자:** 저도 이렇게 온라인 포럼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했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미경 센터장님이 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계획으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현재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하셨던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런 것이 먼저 설명이 되고, 그 후에 저희가 방향까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이 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온라인 영상제작에 관련한 교육을 했는데, 전체 강사 분들께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받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통

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하반기 내내 진행해야 할 듯하다.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영상제작지원을 하고 있다. 10개 기관이 참여해 학교로 배포할 예정에 있다. 이 부분은 하반기 내에 한 번쯤 더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예정이다. 스튜디오 역시 모든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연락드리겠다.

거점에 있어서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은평에 그런 공간이 많지 않다. 민간도 공공과 같은 안전에 대한 방역이 문제가 되어 개방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도 거버넌스 구조에서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마을 원칙으로 삼는 것도, 공공적 원칙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콘텐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긴급돌봄이라든지 소규모 대면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지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학교가 1/3 출석 인원수에 제한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많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나 학습에 있어서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마을 강사와 연계하기를 위해 현재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온라인 전환했을 때 우리의 콘텐츠가 적합한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환 수업을 하며 같은 영역끼리 모여 협업을 통해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모임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환기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그러한 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모집도 새롭게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9월 공고가 날 예



정이다. 어떻게 하면 그대로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의지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문화센터처럼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 마을 강사 분들에게는 문턱을 낮춰서 마을 교육 활성화에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서로 돕고 해결하는 과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사회자:** 콘텐츠 사업이 계획대로 가는지, 학교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계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센터의 방향과 같은가?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학교와 마을,

#####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돼야

**센터장:** 예, 먼저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인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에 그 수업을 한번으로 쳐서 지급하기로 했다. 재료는 점점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 재료비에 맞는 학급 수나 그런 것을 학교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을 관련해서 키트로 만드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검토해 보겠다.

두 번째는 학교선생님들께 콘텐츠 연계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조사했다. 반드시 하고 싶다고 한 것은 학교의 의견이었지만 교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몇몇 학교는 외부 강

사를 취소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어떤 현황인지 알 수 없지만, 학교는 올해 안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지식전달 위주의 온라인 수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콘텐츠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면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취소될 학교가 많은 경우, 긴급돌봄지원금으로 형태를 전환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전환할 때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든 문서든 전달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는 학교대로 고유한 역할이 있고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마을도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마을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간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학교는 공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사회자:** 마무리 전에 채희태 발제자의 말씀을 듣겠다.

####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키워나가며,

##### 마을과의 관계성에 집중

**채희태(발제자):** 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반대한다. 마을 강사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따라갈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마을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학교와 마을에 모이는 것의 차이는 학교에 모이면 학교에 모인 아이들이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집 근처에 있으면 통제가 될 수 있다. 룰이 다른 것이다. 그런

시대에 마을로 오는 이유가 통제 가능한 오프라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런 거점을 지역단위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을의 관계성이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심 좋겠다. 이 교육시스템을 축적한 지 8년이 되었는데 그 시간동안 관계가 축적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사회자:** 코로나 시대에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이 문을 닫는 게 길어지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다양한 형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보겠다.

**센터장:** 지난번 교사 분들과 집담회를 했을 때 마을 강사 분들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 저희 센터도 원칙이 소규모 대면이다 했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마을 강사들이 모여 연구하고 마을 교육 콘텐츠를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 발언을 전달한다.



##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마을 교육의 방향성

교육 콘텐츠 사업 강사들과의 집담회 2차

### 강사 집담회 2차

**일시** 2020년 9월 1일 화요일 10:00~12:00

**사회자** 이미경(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발제자** 채희태(사회혁신연구소 연구위원)

**참석자** 마을 강사 11명

\* 마을 강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 마을 교육 또한

### 온라인으로 전환이 필요한가?

**이미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하 사회자): 사실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학교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도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교육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마을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강점이라 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오전에 진행된 집담회는 현재의 불안함과 이후 전망에 대한 상황을 나누다보니, 온라인이라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은 강사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학교와 청소년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서 마을 교육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부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다.

먼저, 2012년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에 구청 보좌관으로 계셨으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교육 관련을 주도하는 최희태 연구위원님의 기초발제가 있겠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교육의 기회’ 1부 발제로 같음)

**김보**: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육부분 제안에 대해서이다. 관계성 부분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마을 강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학교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을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 마을 안에서 안전한 거점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희태**(이하 발제자): 현재 전국에 220개 자치구 중 160개 정도가 혁신교육지구라고 한다. 학교가 학교만으로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마을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마을에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대상화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중요성은 개별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학교 교육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터진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학교에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에 모이는 것이 더 위험한 게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확진자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퍼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모이고 그곳에 선생님이 오면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카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뭔가를 해 보는 것이 주된 교육이 될 것이다. 은평은 이런 마을 교육을 8년을 기획해 왔다. 작은 단위의 안전한 거점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시대가 온 것이다. 강사가 교육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 노인 복지의 문제, 가장 작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교육이 펼쳐질 것 같다.

**사회자**: 사실 단위의 마을 거점, 선생님이 질문하신 마을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안전의 문제에서 어떤 신뢰를 받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 협치를 통해 배움이 계속되는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김보**: 제공해주신 자료 중 2장에서 혁신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부딪친 지점이 법 테두리를 못 벗어났다. 이 법이 아직도 계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법제화가 중단된 것인지 진행 중인 단계인지?

**발제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있을 때 한계를 뚫고 조례를 만들었다. 물론 많은 것을 담지 못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 자료가 있어서 혁신교육조례를 만들었다.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서로 보완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사회자**: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25개구가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학교에 들어가신 분, 못 들어가신 분, 도서관으로 가신 분, 온라인으로 가신 분도 있다. 그리고 학교와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면 기존의 콘텐츠를 쓰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궁금하다.

###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강사료 개선이 필요

**김영**: 저는 초중고 모두 수업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선 돌봄 교실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특성화 수업을 하고 있다. 이 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PPT와 동영상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2주 정도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강사료는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으면 한다.

**사회자:** 우리도 그 부분을 고민하며 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모든 반에 적용한다고 했지만 준비 과정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김영:** 아이들과 만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면수업은 초등학교에서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못한다. 지금 수업은 조금 재미가 없긴 하다. 중 고등학교는 온라인 작업물만 나눠주고 있다.

**이지:** 저는 중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왔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2학기 때로 진행해 보자고 말씀하셨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지켜보면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것과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 친구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수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에코 놀이를 진행한다. 직접 뭔가를 만드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미뤄지고 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선생님께서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니 소규모로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학교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가 열려있지 않고, 열려있다 하더라도 은평구는 아이가 많은 것 때문인지 학교를 가는 횟수도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

**사회자:** 마을 교육 수업들이 모두 2학기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을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마을 강사 분들과 협력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 특수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 담당 선생님과 연계해 수업 진행

**김영:** 저는 별다르게 달라진 것은 없다. 온라인 교육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주변 선생님 말씀으론 교육 콘텐츠 해주시는 분이 이를 제작해 배포했을 경우 문제점이 더 커진다는 거다. 저희는 인적자원 같은 게 부과되는데 하나를 제작해 열두 번을 다 쓰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대면수업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고3만 출석해서 오는 아이들은 수업을 하고 있고, 안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료를 선생님들께 드리고 선생님들이 제게 강의를 받는다. 제가 안했던 수업은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피드백을 해서 해서 전체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7회 차 수업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뢰받은 다른 중학교는 12월 달로 미뤄져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때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사회자:** 선생님과 연계하는 수업으로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소규모 수업이라 가능했나?

**김영:** 저희가 특수반아이들이다. 8명인데 공익보조 한 명만 있고 담당 선생님과 저, 그리고 선생님이 참여를 해야 한다. 보통 한 명이 참여하면 3명, 5명 그렇게 나뉘진다. 별 문제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5명 수업할 때는 3명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며 진행하고 있다.

**한성:**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은 못하고 있다. 학교 수업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에서 수업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영상 교육 쪽인데, 실기를 꼭 영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실험을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봤을 때 면대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 실내에서는 특히 컴퓨터 관련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 만나는 게 고민이 된다.

**사회자:** 마을 교육은 사실 면대면 수업이 원칙이라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 지원을 많이 안했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지 중단되어선 안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상황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구글 클래스룸과 EBS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 의외의 장점들

**김인:** 저는 사실 은평구에서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으로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학교 두 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구글 클래스는 처음에 복잡했는데 사용해보니 편하다. 과제나 출석, 설문지 등 모두 관리가 가능해서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출석과 과제 관리를 다 하고 있다. 저는 앱 만들기 수업이기 때문에 앱파일을 바로 확인해서 실시간 피드백을 한다. 단점이라면 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픈해도 밤 열두시 넘어 수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 질문하면 빨리 피드백 해줘야 하지만 늦은 시간에는 곤란하다. EBS는 하나하나 따로 넣어줘야 해서 익숙지 않은데, 다음엔 선생님과 연계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선생님께 여쭙보니 설문지를 링크해서 피드백을 받으라 했다. 저는 처음에 동영상 제작을 하고 PPT 제작 준비를 해놨어도, 편집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물론 작업을 해놓으면 또 쓸 수 있지만 관련 멘트나 학교가 언급되면 다시 편집해야 하고, 중간에 오타가 나면 또 모든 걸 바꿔야 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완성했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다.

**두숙:** 저는 면대면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려고 했는데 PPT를 만들어 목소리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목소리를 입혀 지시를 하면 반마다 아이들이 하는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이 있다. 면대면으로 수업을 나갔을 때 책상 하나에 한 사람씩 앉게 하고 활



동했는데, 10명 정도로 두 반 나눠 수업을 하니,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이전에 키트나 준비물 같은 걸 준비해 주고 줌을 이용해 수업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었는데 면대면 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효과적이었던 생각을 한다. 학교 수업이 안되고 있어서 예산을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넘긴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거긴 학생 수 제한, 시간제한으로 하니 괜찮았다.

**사회자:** 오전 집담회에는 강의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선 작은 규모라도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저도 소수이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을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금 더 이를 구체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 선생님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 새로운 연계의 발상

**강진:** 은평구에서 자원봉사 하는 학교, 방과후 지원센터도 학교에서 하는 교육인데, 간혹 학부모 교육과 학교 관련이라 교육청 강의를 전혀 나갈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 외부 강사를 쓰지 말자고 해서 저는 올해 학교 수업은 나가지 못한 상황이고 방과후 지원센터는 은평초와 연결됐다. 아이들과 재활동 장난감 노는 것을 배우고 있고 안전 문제, 아동학대 유괴 등 교육관련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만드는 수업은 아이들과 스킨십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수업의 일정 부분을 외부 강사가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을 담당 선생님들과 연계하는 것이다. 방과후

지원센터는 기존 마을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하거나, 마을 강사들과 학교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사들이 학부모나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보통 주변 지인들의 고민은 바로 아이들과 집에서 잘 지내는 방법이다.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사들에게 제공해주고 강사들끼리 서로 가지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줌이라던가 리모트 미팅과 같은 걸 배우려 했지만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면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걸 알려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 면대면 교육을 10명씩 했을 때, 강사들의 역할과 방법론을, 비대면과 면대면 교육 방법을 같이 공유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저는 아이들과 만나 직접 설명해야 하는데 기계에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력이 100%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역량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

**최동:** 저는 엇그저께 동영상 촬영하러 다녀왔다. 상반기 때는 수업을 못했고 하반기 9월 15일부터 민요수업을 하기로 두 학교 일정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문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실에서 홍보용으로 민요 하나 녹화하고 와서 이를 각 학교나 마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온라인보다 대면수업이 좋은데, 두 가지를 겸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사회자:** 저희가 68개 학교 전체를 조사했다. 2학기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 결과가 8월 30일 어제까지 해서 다음 주초에 나오면 그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학교와 계약한 부분, 다른 이외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논의 후 알려드릴 예정에 있다.

### 센터에서 받은 온라인 강의가 도움 많이 돼, 아이들도 쉽게 적응 중

**김보:**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수업 한 그룹 당 8명이다. 대상은 2학년, 3학년, 4-5학년 세 클래스로 운영하고 있고 수업은 줌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강의를 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 온라인 교육과 저작권법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왜냐하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 후 학교에 통으로 주면 학교에서 무단으로 써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줌은 저작권이 교사에게 있다고 인지를 해준다. 이 영상을 사전에 고지 없이 SNS에 공유와 같은 형태로 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지를 시킨다. 저작권법으로 수업자료나 모든 강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는 줌을 통해 아이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형태이다. 수업을 한 시간 동안 줌으로 생방송처럼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온라인에 굉장히 강하다. 이미 학교에서 모든 태블릿을 지원해 줬기에 회차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사실 저도 처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라 실험적이었지만,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느끼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있다.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공예를 배우고 있다. 제가 참여하는 수

업은 가방 만들기인데, 처음엔 ‘공예가 어떻게 줌으로 될까?’ 했는데 한쪽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누군가 ‘질문 있어요’ 하면 카메라에 비춰 천천히 보여 주신다. 조카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옆에서 제가 수업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며 온라인에 익숙하게 적용하니, 선생님들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듯하다.

**최문:** 저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공예를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다 하셨는데, 저는 공예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 비대면 수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대면수업을 했을 때는 아이들과 소통이 수월했는데 비대면 수업은 해보지 않아 겁이 났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을 녹화해서 틀어줘야 하는 것인지, 쌍방향으로 어떻게 의사소통 될까 고민했는데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니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저도 온라인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학기 때는 아이들이 10명이라 넓게 앉아서 두 반을 대면 수업으로 마스크 쓰고 진행했는데, 소독약 뿌리고 바르고 진행했고 아이들 반응은 매우 좋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2학기로 미뤄지며 수업이 없는 상황이다.

**이화:** 저는 전통공예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해왔지만 비대면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2학기만 기다렸다. 왜냐하면 2학기 때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수업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전통공예를 만들고 전통놀이를 하는 공연이기 때문인데, 보통 1시간을 만들고 1시간은 노는 놀이를 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집담회를 통해 마을 강사 분들이 모이는 시도를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제가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았고,



저 스스로가 처음 하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교육을 받는다거나 정보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사회자:**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예를 통해서 만들기가 가능할까 고민하며 지내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를 김보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학교에서도 키트를 제공하면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출석 등교수업을 할 때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이 지쳐있다’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대면으로 활동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는 2학기 때 반드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2학기 때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다. 이후 코로나가 중단되면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마을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예전엔 상호대응이라고 하는 소규모 수업, 일대일 수업을 할 때 역량강화까지 정리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마을 강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부탁드린다.

**이화:**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르겠다. 센터에서는 너무나 잘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센터에 뭔가 바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보:** 저는 비대면 수업을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실습수업까지 해봤으니 실습수업 역량에 따라 어떻게 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는 엄마가 챙겨주는 아이들만 수업에 들어온다.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은 집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센터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단위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회자:** 교육복지센터와 저희도 온라인 원격 학습지원을 했는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 지속되지 못했다. 다시 2학기 때 지속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긴급 돌봄 교실, 콘텐츠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보:** 차상위 계층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온라인이라도 얻는 게 클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추석 이후로 독감과 같이 유행할거라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

**두숙:** 저는 주변에 은평구에서 긴급 돌봄을 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신다. 어려운 사안이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은평구와 연계해서 면대면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사실 수업을 동영상만 보내준다든지 단순작업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아이들과 소수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문제라는 말씀

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김보 선생님 말씀처럼 차상위 계층도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마을 교육이 제공되면 좋겠다. 사실 놀이터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최대 1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구청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 구청 역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삶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을 강사, 마을 활동가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인:** 제가 녹화를 직접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것저것 찾아야 하고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녹음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하니 좋다. 저도 아이들 앱을 만들 때 보니 아예 로그인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끝날 때까지 제대로 완성을 못하는 친구도 있다.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도 어렵다고 해서 완전한 비대면이 힘든 점이 있다. 설령 기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연구하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

**한성:** 저는 대학에서 세미나를 주로 진행을 한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진행할 때도 중간에 포스팅을 담당해주는 분이 있어서 수월했다. 인터넷으로 국제토론을 진행했

는데 거기에 교육감님도 같이 들어오셨다. 줌으로 토론해 보면 관제자 5,60명 같이 했다가 그룹별로 나누면 다시 나가서 다시 토론장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방법을 연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는 컴퓨터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직접 프로그램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과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토론회를 진행해보면 미리 읽히게 하고 담당 선생님들이 리뷰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르는 친구, 잘하는 친구들이 차이가 나서 진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면 괜찮다. 특히 교육감님들도 같이 듣고 재밌어 한다. 왜냐하면 교육감님들 또한 이런 접촉의 기회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동시에 효과를 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김영:** 저는 온라인 화상회의가 활성화 되며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마을 교육 콘텐츠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교육의 모토는 아이들을 만나며 정서를 만지는 인간적인 접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응암초에서 6~8월 온라인 멘토 수업을 했었다. 사실 온라인 수업조차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시대가 이러다보니 방법은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 부분,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다. 긴급 돌봄이면 무조건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학교수업을 못하는 이유는 대상자

가 학교 수업을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그 외에 모이는 곳은 있다. 그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찾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다시 열게 되면 그런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 지금도 돌봄 아이들 전원이 나오진 않지만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못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자:** 사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는 게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격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지:**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진행될 때 만들기를 하고, 이를 가지고 노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내 수업은 비대면은 어려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집담회 하면서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 그리고 강선생님 말씀처럼 만들기를 해도 굳이 친구들끼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족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다. 오늘은 다양한 사고의 전환이 되었던 생각이 든다. 현재 학교에서 계속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자:** 오늘 저희에게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유튜브가 저희는 익숙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다. 그 유튜브 내용이 걸리지 않는 것도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을 교육의 또 다른 역할과 형태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든다.

**김영:** 저는 돌봄 교실에 수업을 나가고 있다. 방과후 진행이 안 되어 일자리가 없어서 돌봄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돌봄도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오늘 너무 좋은 회의라 얻어 가는 게 많다.

**사회자:** 오늘 이런 마을 교육의 주역이신 분들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속에서 자기고민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계신다. 사실 내년엔 아무리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과연 온라인 교육이 대안이나? 이것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 선생님들은 키트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관계, 마을에 관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짧게 발제자님 말씀 듣겠다.

#### 마을 교육의 강점은 결국 오프라인에 있다

**발제자:**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 콘텐츠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단 생각이 많이 들었다. 사실 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수업에는 반대한다. 왜냐면 우리의 강점은 오프라인에 있고,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가 정말 잘한다. 우리는 그만큼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해도 경쟁상대가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보다 마을로 옮겨오는 대면의 강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8년 전 우리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시키는 교육 콘텐츠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앞으로 센터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점을 개척하자,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몰리는 곳이 교회나 도서관, 집 앞 공원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배우는 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하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평 마을 속 학교가 있는데 1호 2호 인증제를 발급 하자는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많은 자원을 발굴하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거점을 발굴하자는 것이 새로운 규칙이란 생각이 든다. 코로나와 같은 규칙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익숙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나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내가 만약 나의 가족과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풀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교육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제가 재수하며 배신감 느낀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다녔으면 하버드를 갔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스타강사를 국가가 살려서 온라인으로 듣게 해주는 것이다. 오프라인 영역은 학교와 마을이 담당해야 한다. 또래집단끼리 만들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마을에서 할 교육은 삶의 교육이다. 우리가 내 주변사람들, 또래 부모와 어르신과 힘없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의 교육을

우리 마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균형이 맞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서로 대치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은평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저희는 8년 전부터 성장을 축적 해왔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 소름 돋을 만큼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이 교육해 나간다면, 꾸준히 기록되어 확산되면 좋을 것 같다.

**사회자:** 마을 강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동청소년에 대한 삶의 문제, 교육의 문제, 마을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의 역할을 대답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우리 마을은 그것의 틈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삶에 대한 교육, 시민으로 성장하는지의 역할을 해낼 것인가, 우리 교육의 주체로서 마을 강사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 오늘 익숙지 않은 온라인 토론 두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마을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

교육 콘텐츠 사업 강사들과의 집담회 3차

### 강사 집담회 3차

일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10:00~12:00

사회자 최승국(나우엔 연구소 대표,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발제자 광미영(은평지역교육 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참석자 이미경(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마을 강사 10명

\* 마을 강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 저희가 상반기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들을 제안한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이 몰리는데 마을 콘텐츠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한 하반기에 어떻게 학교 선생님과 진행되거나 의논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2021년에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어 8월 달에 10번의 집담회를 기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40분을 모시고 4번에 나눠 진행하고 있다.

**최승국**(이하 사회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학교 선생님들 포함하면 네 번째 시간이다. 여러분과 얼굴을 만나 보길 기대했는데 영상으로 봐서 아쉽지만, 온라인 진행을 며칠 해봤더니 나름 괜찮다.

처음엔 코로나 시대에 고민을 하고 있는 어려움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나누는 시간 가지겠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마을 콘텐츠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첫 번째는 방과후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영상을 보여 드리겠다. 두 번째는 교육 콘텐츠와 연계된 내용만 부탁드린다.

(‘with 코로나 시대의 마을 교사의 역할과 비전’ 1부 발제로 같음)

**사회자**: 발제자 분이 고민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시대 뭘 하면 좋을지 의

전들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전 집담회에서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 들어온 질문 총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해 보았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영상을 위한 강의개설 계획이다. 최근 50명 대상으로 줌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영상제작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 개설을 할 지 논의 중이다. 두 번째로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이다. 방과후지원센터 지하에 스튜디오 설치 예정이며, 설치 후 마을 강사들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 번째는 내년도 모집 계획으로, 2020년 기존 단체, 개인들은 변경에 대한 사안만 받을 예정이고 신규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이 올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 학교와 조정하여 최대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남은 예산을 학교 긴급 돌봄으로 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마을 강사 분들의 위기감이 있을 것 같다. 다들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마을 콘텐츠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

### 연기와 취소로 이어지는 당혹스런 상황, 생활을 위한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김기: 일단 저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학기 때 한 군데 진행한 것 외에는 사실 모든 수업이 연기 절반, 취소 절반의

상황이다. 그렇게 2학기 연기된 곳을 포함해서 속도를 내지 못해 제가 부담이 될 거 같았는데 오히려 사라졌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학교와 연계된 콘텐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다른 직업을 찾았다. 예전에 함께 갔던 선생님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물론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직 구세대라 그런지 온라인이 가능할지 아닌지 혼자 먼저 사전에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다른 수업을 보며 알게 되었다. 요즘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서예나 단소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다. 이런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면보다 편하다고 한다. 그들이 선택해서 듣기 좋다는 사례를 보니, ‘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어떻게 기획하면 될까?’를 더 고민해보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고민이다.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도 했다. 요즘 제일 뜬다는 택배, 그런 알바도 하고 다양한 알바들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제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건강과 안녕이겠지만 제 안녕과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많이 슬프다.

사회자: 네, 많이 슬프네요. 저도 많은 강의가 취소가 되었는데,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겠다.

김민: 저도 김 선생님께 많은 공감과 위안이 되었다. 저는 줌을 통한 교육을 지원해주어 그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그

때 받았던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조명도 놓고 배경판도 구매하고 카메라도 추천해주신 길로 구입하고 제 환경 속에서 큰 변화를 주기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얼굴이 굳어지는 건 사실이다. 화면으로 보이는 본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 받아들이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더 좋은 의견이 모아지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나 온라인 이외에도 다른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반기에 있는 전환기 사업이나 수능 이후에 변화가 올 여러 가지 것에 저희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임수:** 네, 저도 요즘엔 수업이 많이 취소가 되어 딱 한 군데를 1학기 때 나갔다. 그곳 또한 코로나가 심해진 관계로 못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코로나 때문에 연락조차 오지 않아 답답하다. 다른 직업을 찾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 고민 중에 있다. 뭔가 해답이 있을까 기대하며 나왔다.

### 코로나 시대가 지속된다면, 온라인 수업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양선:** 저는 작년엔 중학교 자율학기제 수업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과 그림책수업을 하고 있었다. 올해는 수업이 다 취소되었고, 유일하게 대안학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고등학교에 영상제작을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된다면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 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상 촬영 관련 공동 시스템을 마련해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강지:** 저는 콘텐츠 사업과 무관하게 하고 있는 게 있다. 제가 하는 걸 줌과 구글 클래스를 활용해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반기에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교육을 듣고 싶다.

**신성:** 저도 학교 수업을 주로 나갔었는데 한 번도 못 나가고 다 취소되었다. 학교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와 동아리 지원하러 8월에 몇 번 갔으나 또 연기가 되었다. 수업여부는 모르겠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과 반응을 못 봐서 온라인 교육이 힘들어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지금은 긴급 돌봄으로 초등학교에 나가고 있다. 제가 하려는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이 중요해서 모둠 활동을 통해 진행 하는데, 학생들의 토론 작업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다.

### 코로나 상황에 맞춘 수업 키트, 의외의 효용가치와 성장의 기회 얻어

**김은:** 저는 제 다음에 말씀해주실 김미 선생님과 같이 작년과 올해에 ‘반전세계문화기행’이라는 콘텐츠를 제안 했었다. 반응이



좋아서 작년 앵콜로 준비를 해온 중이었고, 나라별로 직접 대면해서 여권을 만드는 체험 콘텐츠라 온라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요청이 왔었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PPT 안에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서 수업을 올리고 자료는 꾸러미로 만들어 배부를 했었다. 그 방법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른 수업도 키트 배부를 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엔 온라인 수업에 맞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 콘텐츠가 이론을 정리하는 수업이라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의외로 효용 가치가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미:** 저는 앞에서 김은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했었다. 물론 처음엔 선생님들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상황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연구하고 배운 것을 통해 수업을 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올려주고 구경하는 정도의 소통이었다면 지금 세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며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끊임없이 아이들과 댓글과 메일, 문자를 통해 피드백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을 주고 칭찬을 하니 첫 번째 보단 두 번째가, 두 번째 보단 세 번째 학교가 참여율이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우리 스스로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한다면 더 좋은 수업으로 성장하며 아이들과 함께 적응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엔 의미 없이 꾸러미를 나누어 주게 했다면, 한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대면하겠다고 알려서 최대

한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재료를 나눠주고 인사하고 마주보고 나눠주니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하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기인 것 같다. 사실은 초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놀아본 적이 처음인 것 같다. 이제는 놀 곳도 없다. 엇그저께 온라인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지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얻는 저의 변화를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럴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시간 또한 인간의 한 부분이고 인생의 기적이라 생각한다.

**사회자:** 어려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셨다.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까지 고민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하고, 대안을 찾아주신 분들의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부터는 희망을 가지고 하반기 활동을 어떻게 할 지, 좀 더 나아가서 마을 콘텐츠 활동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환되면 좋을지 대안을 들으면 좋겠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마을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을 주셨다. 공공의 영역이 가장 먼저 방역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지나갈 것을 대비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고민한다면, 8,9개월간 지속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공공이 마지막

까지 시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활동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드리며,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다.

###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정보 공유 필요

**김민:** 일단 저는 아무래도 대면과 비대면 부분에서 아이들의 감각적인 면이 떨어지는 부분, 화면만으로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만의 법칙이 있다면 우리도 어떠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함께 가지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은평만의 평가방법이나 학습을 준비하는 부분, 학생들이 참여와 이해에 대한 부분부터 객관적인 수준의 향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학교 내에서의 수업에 대한 평가나, 마을 방과후 교육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틀이 있으면 어떨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사회자:** 발제 하실 때도 그렇고 온라인 교육을 지양하자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함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최문:** 1학기 때까지 수업 진행을 했었다. 2학기 때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전환기 수업을 취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고민되어 투 투

랙으로 준비하려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 교육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저는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신 온라인 수업 교육을 받았는데, 온라인 구글과 줌 관련한 교육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게 좋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 센터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장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선생님들과 만날 수 없지만 서로 품앗이로 분과별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어떨까 싶다.

**강지:** 저는 마을 교육 콘텐츠를 해본 게 별로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본 결과 굉장히 준비시간이 길었다. 어차피 해야 할 온라인 수업이라면 각자 준비를 하고 역량이 부족할 경우 분과나 소규모 모임을 줌을 활용하여 각자의 노하우와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분들과 함께 어떤 콘텐츠를 구성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서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같은 분들은 만나서 마스크 쓰고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오진:** 선생님들은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 줌 교육은 괜찮았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포기하시는 분들, 포기하려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온라인 수업도 학교와 마을의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면,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살필 수 있다

김미: 공공기관을 달아버리니 수업을 진행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소규모 대면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대면교육의 중요성은 다들 안고 계신다. 분명 학교와 기관, 마을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되 학교와 마을의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분산되어, 지키는 선생님이 있거나 도와주실 마을 강사가 공존해 있다면 학교나 공간에서도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러한 소통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교육 자체에서도 부모에게 케어 받지 않는 상황도 많은데, 소규모로 동시에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

김은: 여러 이야길 듣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투 트랙을 준비, 불시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장단점이 많이 발견된다. 한 학교에서 한 친구가 일대일로 ‘오늘 힘들었지?’ 말 한마디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학교 클래스마다 플랫폼이 달라, 발 빠르게 적응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변하는 시대에 플랫폼을 다루는 기술부터 준비가 되어야 콘텐츠가 무엇이 되었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일방적인 수업이라 이 시대가 지나면 적극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건의사항들을 쌍 방향으로 받아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저희도 수업을 해 가면서 다섯 명 씩 묶어 자세하게 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에 대해 세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고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고민 필요

신성: 저도 앞 선생님들과 비슷한 생각이다. 한 반 단위로 수업을 해서 소규모 공간을 할애하면 좋겠다. 대부분 EBS 원격수업을 하다보면 아무리 온라인으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도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는 없다. 역시 저도 대면으로 학교공간을 이용해서 방역하시는 선생님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쌍방향 온·오프라인 양쪽으로 수업을 진행해보니 온라인으로 ‘말을 쿵쿵해봐라, 소리라도 듣자’ 라고 해서 참여유도를 해봤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양선: 저도 일방적으로 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횃수가 거듭될수록 강의하는 방법이 나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도태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준비하는 걸 꺼려했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강

사로서 참여하고 싶다면 온라인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사실 온라인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우리가 다른 일반 전문적인 분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대면과 지역 간의 장점을 살려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양선:** 일단은 2학기 수업이 준비된 곳에서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것 같다.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상황을 보며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신다. 지금 상황에선 누구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임수:** 사실 줌으로 수업을 해봤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시작이 다 다르게 나온다.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럿이선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들어보니 소수의 대면이 참 좋은 것 같다. 20명 이상 하다 보면 일일이 소리를 잡아주는 게 쉽진 않다. 그래서 비대면 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의 문제를 잘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교육과 방역,

####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규모 교육과 돌봄의 방법

**김기:** 저도 사람들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 나름대로 좋았던 시

간이라 생각이 든다. 먼저 두 가지 관점이 보이는데,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고민할 때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방역과 교육 두 가지 관점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규모 교육과 돌봄을 클러스터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교육 콘텐츠는 학교, 학교는 학년, 학년은 특정 반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을 지역과 환경의 최소한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로 소규모로 나눌 수 있을지 답이 나올 것 같다. 학교 주변 지역으로 제 집을 클러스터로 선정하여 확실한 방역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아이들과 대면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관계적인 측면을 개선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온라인의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강조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상태를 가늠한다면 콘텐츠 교육 관련 참여 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학습을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참여의 이해라든지 객관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마을 방과후나 콘텐츠 교육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사회자:** 정책제안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기:** 교육자나 피교육생들 모두가 기술적 측면에서 교육을 이

야기한다. 사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사용해 보느냐 안 해 보느냐 차이일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방과후지원센터 안에 스튜디오를 꾸린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이 든다.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고민해주고 컨설팅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 온·오프라인 모두 준비하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대면교육

**곽미영(발제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라인 교육을 했었을 때에 좋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걸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저도 온라인 교육이 막연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신 마을 교육 교사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PPT에 음성녹음이나 캐릭터를 추가한다는 방법 등으로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를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두 가지 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 최종 목적은 대면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을 대면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대면교육일 것인데, 요즘은 해외교육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논문을 찾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이전에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기 보다는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대신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격지원과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돌봄이 되지 않는 친구에게 마을 교사를 붙여서 역할을 했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니 우리

도 그런 시사점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누구도 말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활용해 선생님의 지혜들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센터장:** 선생님들의 고민과 저희의 고민이 같았다고 생각한다. 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온라인전환 컨설팅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 하에 의논해서 상호 컨설팅을 마련해 보도록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비대면 부문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중이다. 학교에서는 지식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다. 이를 비대면으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고립과 단절로 오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면 학력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소규모 마을 대안 교육으로 제시해보자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간적인 부분이 심각한데, 공공이 문을 닫고 있고 방역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마을이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학교 선생님들은 '1/3 출석이 걸리지 않으면 학교에서 제 공해야 한다,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집이라든지 새로운 거점을 발견해 연계하는 교육을 방향성 속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식이든 콘텐츠와 연계해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는 다 확인했다. 68개의 학교에 확인했을 때 몇 개 학교 빼곤 지속

하고 싶다고 하고 있기에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긴급 돌봄 교실로 갈 것인지 소규모 대안 교육으로 마련할 것인지, 아이들에 대한 비대면을 소규모로 가야 될 것인지 네 번의 토론회를 거쳐 정리해서 내년의 계획을 삼아보도록 하겠다.

**사회자:** 물론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대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부담은 한 측면에서는 선생님과 학교당국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찾아가서 의사결정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저 역시 하고 있다. 의미부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 동기부여도 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컨설팅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존의 공공공간이 정말 2단계 이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마지막까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담론이 나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센터장:** 모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집담회 여기서 마치겠다.





## 마을 강사의 비전과 마을 교육의 진정한 의미 공유

교육 콘텐츠 사업 강사들과의 집담회 4차

### 강사 집담회 4차

**일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13:00~15:00

**사회자** 최승국(나우엔 연구소 대표,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발제자** 광미영(은평지역교육 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참석자** 이미경(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마을 강사 11명

\* 마을 강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 저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반기 교육 콘텐츠 연계가 되지 못했다.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시다시피 모두 고3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콘텐츠 연계 사업이 올 12월까지 진행될 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실 거란 생각이 든다.

지난 3일간 집담회를 진행해오며 생각지 못했던 공간문제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방법적 연구가 많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인 의견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 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승국**(이하 사회자): 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굴을 보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스럽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나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사업들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그 속에서도 스스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두 번째는 마을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지 제안 주시는 의견을 들어보겠다.

(‘with 코로나 시대의 마을 교사의 역할과 비전’ 1부 발제로 같음)

## 마을 교육, 통합적 돌봄과 교육을 함께 시도할 때

**센터장:** 제가 고민했던 것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상상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 정확히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제시하신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분리보다는 마을 교육의 통합적 돌봄과 교육을 함께 시도해보자 이야기 하셨는데, 마을 교육의 통합적 돌봄과 교육을 동의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적 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 교육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도움이라 보고 있고, 마을 교육의 확장도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커서 이것이 공교육의 확장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교육으로 설명하셨기에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미영(이하 발제자):** 이미경 센터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부정적 시각으로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이 마을 교육으로 확장되었을 때 마을 교육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교육으로 나갔을 때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그 외에 교구재를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 학부모님이 찾아오는데, 투여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사교육이라고 부정적이라는 편견을 완화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 교사들이 투여하는 비용들과 공적인 비용의 한계를 생각했을 때 이제는 교사들이 마을 교육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진정성

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제의를 드리는 것이다.

**이민:**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전 회의에서 나온 것이 있나?

**센터장:** 공교육 사교육 통합 이야기에 관해서 나온 부분은 아직 없다. 오늘 다 같이 이야기 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 했을 때 국가와 개인의 지급기준으로 나뉘었다. 공간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사적인 투자나 기업의 투자로 여겨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한다.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8월까지 여러분이 겪어 오신 어려움이나 극복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지 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이나 시간 할애 없이,

## 제안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모두 강사의 몫

**정영:** 저는 마을 탐방 강사로 활동하는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역량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1학기 때는 생각했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솔직히 무력감이 크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접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힘들다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다고 하는 것 같



다. 학교 교사 분들은 나름 열심히 준비하며 힘들다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게 전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래서 마을 강사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사실 재료 준비부터 강의까지 이어지기 위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예산이나 시간이 통제 하에 이루어져 왔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주제만 던져주고 나머지 몫이 전부 강사들로 넘어와서 그것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옥:** 과학수업은 아시다시피 실험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가 줌으로 한번 수업을 해봤다. 너무 힘들었다. 실험은 정량으로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도 혼자 할 수 없고 보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줌으로 과학을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야지만 효과적인 과학수업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 하니 손 놓고 있고, 1:1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론은 비대면은 아주 힘든 상황이라 제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주위에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듯하다. 과학은 대면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온라인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필요

**김선:** 제가 원광 디지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듣는 입장은 익숙하지만 강사로서 수업은 경험이 없다. 중학교에서 수업을 해달란 제의가 왔었습니다만 시스템을 전혀 모르기에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생 두 명이서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그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 보통 EBS 틀어놓고 다른 시간을 보내거나 누워있거나 한다. 체육수업도 틀어놓고 따라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화상수업이 효율적이지 않겠단 생각이 든다. 요가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이민:** 저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촬영해보고 하지만 영상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번 줌 교육할 때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을 방과후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을 정기화하면 어떨까 한다. 저희가 만든 강의의 질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에 주력하지 않을까 한다.

**김은:** 저는 1학기 때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취소되고, 초등학교 학습 도우미 요청이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실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돌봄 학생들 대상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방역 부분을 구에서 허락 해주면 그들도 수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수업 예정이었지만 신청한 학생들이 없어 취소해야겠단 연락을 받았다.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아이들이 오전부터 온라인 수업만 들으니 무척 피곤해하고 더 이상 수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무작정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의도 만들어주시고 애쓰시는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재밌고 특색 있는 수업을 열어주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올해는 수업을 못했는데 내년엔 수업을 모집하게 되니, 내년

에는 이런 방법으로 과정을 지켜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회자:** 8월 13일, 학교 교사들과 집담회를 했을 때 학교에서도 공간을 열어 마을과 연계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추후 이 고민을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 현장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공예 수업, 예쁜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

**오세:** 저는 일단 유치원과 초등수업을 중간에 했었다. PPT 제작이 있었고 현장에서 보니 인원이 다른 적도 있었고 그 전에 수업의 특성상 소독과 방역을 지키고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모둠으로 수업하면 기계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개인별 도구가 필요하니 그것이 강사 부담이 되고, 강사 부담이 되고난 후 아이들이 떨어져 앉아 있으니 보조 선생님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했으나 가중이 되니 부담이 되기도 했다. 성인과 온라인 수업으로 해 봤는데, 일단 공예다보니 확인이 어렵다. 저도 공예가 잘 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온라인은 성인으로 주 3회차 정도 진행을 해봤고, 초등과 유치는 대면으로 수업을 했다. 2.5단계로 되어서는 연기가 되었고, 초등학교는 후반에 들어갈 것인데 온라인으로 하니 확인이 되지 않아 수업이 어려웠다. 화면 크기가 작아 확인도 어려워 완성도가 떨어지고, 한번 잘못 만들면 예쁜 쓰레기가 되어 버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된다. 집행하는 곳에서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합리적인지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그래도 현장을 나가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횟수 추가에 대한 강사료 조정 필요

**고미:** 교육 콘텐츠는 진행된 게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7월부터 시작했는데 연기되다가 2.5단계에서 9월에 다시 취소가 되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코로나부터 연기하다 영상촬영으로 전달하긴 하는데, 키트로 하는 건 두 시간 하면 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후 키트를 일일이 하나씩 포장하려니 여섯 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재료 중 냉동하는 것과 냉장하는 것을 분류해야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 관철되지 못해 아쉽다.

또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를 반대하는 이유는 2년간 수업을 나간 중학교에서 이걸 배우신 선생님이 재료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시며 자신이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재료를 2년간 후원해 드렸는데 마을 강사로서 저희 콘텐츠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관련 좀 교육도 참여하고 영상제작지원 사업도 참여했는데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받으니 각자 지식의 수준이 달라 수업 방향에 있어 선생님도 어려워하고 학생들의 편차가 너무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영상제작지원 사업은 공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손 위주로 촬영 부탁을 드렸는데 받아본 영상에는 제 전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의 효용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대면을 소규모로 나누어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반으로 두 번을 수업해야 하는데, 강사료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반적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다 진행할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소:** 저 역시 상반기엔 수업을 못해서 연기 혹은 취소가 되었다.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취소한 것에 대한 서운함, 기다림의 기약 없음이 힘들었다. 제 수업의 극복방법은 수업 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 기약 없는 기다림의 기간에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타개할 방향을 찾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 전달해드린다.

####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는 추가 시간과 비용 책정 필요

**조아:** 저희는 유초중고 중에서 유치원은 수업을 쉬고 있고, 초등은 미뤄진 것도 있고, 중학교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상반기는 모든 기관이 스톱이었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며 수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반드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고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낯설어 하는 것 같다. 이제 피해갈 수

없다면 정기적인 교육과 스터디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적응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을 찍어서 보내달란 학교에는 보내주긴 했는데, 내가 가진 공예작품을 콘텐츠를 보고 잘 따라해 줄지 의문이 들었다. 카메라가 여섯 대 정도 투여해서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5분짜리를 위해 1시간을 찍고 너무 많은 시간과 편집이라는 엄청난 품이 들어간다. 9개 반에 들어가며 재료비는 다 주지만 강사료는 한 번만 제공해주겠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을 때 ‘이걸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도 놀이 수학이다 보니 도구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비용과 시간을 들인 것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신윤:** 우리는 수업 특성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원활한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회차가 줄긴 했지만 조작이 어려운 초등학교 빼고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중 90%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불편한 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콘텐츠를 제공하다보니, 저도 15~20분 동안 제공할 프로그램을 하루 꼬박 소요해서 만들고 올리거나 학교에 나가 출석 체크를 해야 하는 등, 품이 많이 들게 된다. 저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과제를 받아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24시간 매여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학교마다 온라인 플랫폼이 다 달라 공부를 해야 하는 점들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다른 분들보다 수업 참여 기회가 많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처음이다 보니 혼자 좌충우돌 하는 지점이 많았다. 재료비나 준비에 관련한 비용책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 경우도 선생님들이 수업이 재밌다 보니 2년간 제 수업을 들어보다가 본인들이 재료 준비를 해서 이후에 진행을 하신다.

이 문제도 거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마을 강사 교유의 콘텐츠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고민

**사회자:** 콘텐츠 문제는 공적인 자산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 재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 기회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백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계사업을 처음 하게 되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업도 움직임과 모임 수업이다 보니 비대면에 한계가 많았다. 아직까지 수업을 못 하고 코로나 문제로 대기해달란 말만 듣다보니 뭔가를 해야겠단 생각에 교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좋겠다.

**사회자:** 코로나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단계적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 충분히 마음으로 전달된 것 같다.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온라인 보다는 소규모 대면 교육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공유해주셨고, 학교에서도 방역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셨단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백향:** 저는 초등학교 수업이 아닌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아까는 초등학교와 집담회로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셨는데 그에 비해 유치원은 공간이 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교사들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니 그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여러 수업도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센터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교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강의에 자비로 400만원을 들였다. 어쩔 수 없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자 하고 만들었지만 누군가 찾아주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왔다.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자:** 이 공간에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 프로그램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

**신윤:** 저는 아이들의 출석률이 낮아지면서 회차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콘텐츠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별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시도를 함께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이용한 연극이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림자를 배우며 그림자를 3D 프린팅을 해보는 것이다. 생명공학은 개구리 형태를 3D 형태로 출력해보겠다, 하는 것이 융

합 형태의 수업인데, 회차는 줄지만 융합 콘텐츠로 많은 다양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조아:** 현재 은평 교육 콘텐츠에 참여하는 단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작년까지는 한 단체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어서 한 개 혹은 두 개까지 했었는데, 프로그램 개수가 너무 많다보니 학교에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하다면 주제별로 나눠서 개수를 제한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센터에서나 다른 쪽에서 했던 말은, 직접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겹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제한하기 힘들다 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할 때 겹치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낼 수 있게 하든지, 학교에게도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올해까지는 대면수업이었기 때문에 늘 해왔던 단체 혹은 어쩌다 잘 눈에 띄어서 선택했겠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한가 보다는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 없이 콘텐츠 수업의 지속성을 가늠하고 선택할 것이다. 중복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강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영상 찍는 방법이나 기자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돌봄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소규모이다 보니,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돌봄에 들어가는 방향을 제안 드리고 싶다.

**오세:** 저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보조강사들을 보강해서 수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 것이면 차라리 내가 두 번 수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듣듯이, 한 번의 수업에 두세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나누어 수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다. 그 이유가 선생님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주면 자기들끼리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다. 저는 실시간 수업을 하며 화면 이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동영상 강의를 줌 클래스로 수업을 했었는데, PPT가 찌그러지거나 음성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았다.

**사회자:** 동영상 강의가 아직 대세라 하지만 앞으로 화상회의와 같은 시스템이 늘어날 것 같다. 제안 감사하다.

####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 마을 교육 콘텐츠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김은:** 제가 교육 콘텐츠 제안 말고 생각해 본 것은 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 더 강사님들의 프로필을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제작물도 클릭하면 나올 수 있게, 혹은 수업하는 영상들을 담아서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결과물을 보고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대면으로 할 것인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민:** 저는 마을 방과후에 오래전부터 참여했다. 제가 느낀 점은 해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마을 방과후 안에도 마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한 업체는 계속 연락을 받게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재료가 쌓이고 더 투자를 받게 된다. 신규 선생님들의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홀수 해, 이번엔 짝수 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가 중복이 많이 된다.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공예면 공예 등 중복이 되면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눈에 띄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공간의 공유에 대한 부분이다. 공유 공간에 아이들을 소규모로 받자는 전제인데, 강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18명을 세 팀으로 나눈다 하면 강사비를 세 번 주는 것인지, 이 강사비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세 번째는 저희 영상이 유튜브와 차별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튜브를 보면 전문화된 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호응을 받는 사이트도 많다. 우리는 직접 찾아가 케어 하는 장점이 당장 단기적으로 없다고 했을 때, 저도 융합해서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저도 그렇게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자:** 강사비는 당연히 3회가 되면 3회가 지급되는 게 상식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어쩌면 소규모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 선생님들께서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선:** 나를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고 선생님 말씀처럼 콘텐츠 노출 문제도 있다. 그래서 수업 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 수업이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수업 2부제가 진행된다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 마을 교육 콘텐츠 분야별 소통과

### 공감대 형성으로 돌파구 마련

**이옥:** 저도 소규모 대면 교육 수업이 열린다면 참여를 하고 싶다. 온라인 수업은 많이 힘들다. 2020년 콘텐츠 사업 당시 USB를 나눠줬는데 열기가 힘들고 그 안에서 열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저는 USB보다는 예전같이 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무거웠지만 보기 좋고 이야기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수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 집담회도 처음에 저는 과학 쪽으로 신청했다가 다시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학은 과학끼리, 수학은 수학끼리, 예능은 예능끼리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이야기해야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영:**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투자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결국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강사들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회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수



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곳곳에 있는 마을 공동체 공간을 이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 곳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한 곳에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 있는 공간의 공유이다. 그 공간 자체로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폐쇄가 되어있다. 그 공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학부모가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폐쇄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다.

그리고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언급한 콘텐츠별 통합은 저 역시 공감한다. 콘텐츠별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는 없는 것 같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 회차가 거듭될수록 공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공의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한다. 가장 안전한 곳이 공공기관과 학교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니 식당으로 카페로 가는데 그 곳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은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 코로나 시대가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는 전제하에 있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가 길어진다면 공공의 공간이 시민사회 역할을 지키는데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은평구 협치 의장이기도 해서 센터와 함께 이런 공공 공간이 방역이 지켜진다는 조건하에 최후의 보루로 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여러분도 수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교육이란 돌봄과 학습과 관계와 사회성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

**발제자:** 앞선 시간에서 온라인 교육에 관련해 좋은 사례가 있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며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냥 학교에 전달했을 때와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대면했을 때 학습 참여도가 많이 달라졌단 말씀을 하셨다. 상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지만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이란 돌봄과 학습과 관계와 사회성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사회화가 되지 않아 유치원 때의 습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오프라인 모든 준비와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이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과나 분야별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와 기존에 있던 교육 콘텐츠 참여도도 말씀해주셨다. 통계를 보면 4~50%이상이 신규로 연결되고 있고 고미 선생님과 저도 오래되었지만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또한 융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 분과를 나누고 분과를 통해 진행을 하려 했으나 2.5단계가 되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융합을 시도한 부분이 작년이었는데 올해도 전



환기 수업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기 때문에 융합을 어떻게 다룰지 실행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센터장:** 지금 각 선생님들 말씀처럼 처음엔 분야별 모임이나 융합 분과별 모임을 통해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을 하려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여기고 분야별 모임, 분과를 통한 융합 모임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컨설팅을 협의회랑 같이 논의하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 중 교육에 대한 정기화라든지 책임제 교육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 박람회 형식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박람회 사업으로 논의 중이니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강사비와 재료비는 각 학교 지원금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사전에 연락을 드린 것처럼 한 학교에 9번 틀게 되면 영상이든 수업이든 9번의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달했고, 재료비 또한 많으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자님 말씀처럼 온라인 수업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있는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와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는 차이가 아니라 마을 교육은 대면 교육이다. 관계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서로 마을에서 만나고 교육에서 만나고 이런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저의 원칙이다.

온라인 방식에서 학력격차가 심각해진 것 뿐 아니라 고립과 단절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부담과 격차도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이 불안정한 사회에 자기주도성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졌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마을 교육이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분야별 분과별 모임을 통해 성장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지원과 확장, 자기주도성에 대한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자:** 기회의 공평성을 말씀하면서 마을 콘텐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분야별로 중복이 생길만큼 확장과 발전을 한 것이고 그만큼 은평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에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 설령 여러분들이 2,3년 콘텐츠를 학교 선생님에게 뺏긴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여러분만의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기운 충분히 받았다.

**센터장:** 처음에 마을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한 단체나 개인 하나씩으로 제한했었다. 그 이유는 신규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단체의 중복성을 피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다.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선택할 수 없었다.’ 해서 기존에 했던 걸 또 하게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엔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에 확인하니 프로그램은 이 정도의 수가 적합하단 이야길 전달해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협의회 대표분들과 교육 콘텐츠 실무 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

에 있다.

저희는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이 몇몇 사람의 논의가 아니라 길게는 8년 짧게는 1년 올해 많은 휴지기를 가지며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 맞겠다 하여 진행한 4번의 집담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 논의의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 사회를 맡아주신 최승국 대표님과 발제에 참여해주신 채희태 연구위원과 곽미영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정리하며

## 집담회 이후,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집담회 자문회의

### 최종 정리 워크숍

**일시** 2020년 10월 16일

### 참석자

**이은경** 은평지역교육 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고미경** 은평지역교육 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곽미영** 은평지역교육 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오세현** 마을 강사/학부모

**최승국** 나우엔 연구소 대표/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채희태**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위원

**김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임수진**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김미혜**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자원연계팀

**김수연**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자원연계팀

### 최종 정리 워크숍

**이미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하반기 일정에 엄청난 일정과 업무가 몰려오는 바람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집담회의 결과들을 정리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 참여하셨던 분들, 진행하셨던 분들의 의견들을 우선은 날 것으로 이야기기를 나누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21년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하기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10월 달에 모집해서 12월에 온라인박람회를 통해서 학교에 소개를 할 예정이고 이제 내년 3월부터 교육 콘텐츠가 연계 진행이 되고 저희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이 2012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개 학교가 통으로 취소를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고민하는 관점에서 2021년을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고, 우리의 교육 콘텐츠는 어떠한 준비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한 80명 정도의 집담회를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2.5단계로 가면서 4번의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참가 소감 및 평가

**최승국:** 일단은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처음에 8월 달에 총 10차례 줄여서 8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지원을 했고 교사 간담회를 했지만 일반 콘텐츠 선생님들 간담회를 못했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되고 다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모집을 해서 몇 차례

를 하는데 순식간에 다 모인 것을 보고 교육 콘텐츠에 관해서 참 열의가 높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답답한 면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총 5차례 중에서 4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활동을 못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고민들을 해가고 있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었는데 채희태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비대면 수업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대면교육을 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했고 참석해주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시대의 흐름상 완전히 비대면만을 고집하긴 어려우니 그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연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경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에서 우리는 만나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았을 때의 장점들이 사라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큰 방향에서는 소규모 대면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공간을 확보해주는 고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행정에서 공간을 먼저 닫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 행정공간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풀어나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차원에서 공간을 조금 더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코로나를

잠시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 자체도 마을과 함께 하고자하는 의지는 여전히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요구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가되 소규모 대면 교육이라는 이 기본적인 방침을 놓지 않는 고민이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높지 않은데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채희태:**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겐 소중한 기회였고 같은 날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의 내용이 상이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좀 있었어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는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니 그전에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상하면 돌파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보았고요. 처음에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건 공교육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재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입시선발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의 목표에서로 도움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도 거기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건데,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2012년 교육 콘텐츠 사업을 처음 할 때 걸었던 목표가 또 다시 마을의 콘텐츠가 선생님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비교과에 집중하자가 하나의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서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상쇄하고 윈윈하는 게 목표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당시만 해도 마을과 학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상상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정 정도 마을의 콘텐츠가 선택권 있는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시작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런 것 때문에 교육 콘텐츠의 질을 세 번째 원칙으로 삼았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일정 수위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질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지요. 마을 교육은 수완성 교육이 아니라 관계의 교육이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높일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라서 저는 교육 콘텐츠 사업이 누군가 하지 못하는 걸 보완하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올해 저희가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내년의 사업은 약간 방향을 다른 기준을 제시하셔서 그냥 예전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가 아니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면의 신뢰가 있는 사람들과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서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공공기관은 문을 닫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 사적 공간은 바글바글하거든요 왜 그럴까를 제가 고민해보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요 공공기관은 학교가 열지 않는다고 할 때

교육청에서 느낀 건 학교에 문을 열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교장이 집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이런 곳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당장 임대료 내야하구요 이런 목표가 다른 건데 서로 생존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뭔가 모색을 해야지 저는 그게 거버넌스라고 보거든요. 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의 사정을 이해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하는 것,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사적 공간 중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의 기준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미영:** 저는 이 집담회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맡았던 3차 집담회 때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의 근황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들, 안부들을 들을 수 있었고 같이 또 공감하고 이야기 하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학생들과 이런 고민들도 나눌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내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계속해서 당면한 자기 과제를 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자기의 할 일들과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



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현재의 교육체계에 적응이 되어있고 이렇게 교육방법이 바뀐 거죠. 체계가 아니라 교육방법이 바뀐 거죠. 우리 국민 특성이 빠르게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힘들지만 우리 마을 교사들도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가 또 지금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렇게 있는 교육체계가 바뀔 것인가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뒀야 되는 것은 이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 체계에서 빗나가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맞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이 체계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올 것인가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대응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수 있어 좋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교육 콘텐츠 사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대응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또 적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경:** 제가 동네에 바쁘다라는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3개월을 거의 우울증으로 지내다가 우리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점이 익숙하지 않았던 세대라서 그런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받으러 다녔고 집담회 할 때에 온

라인영상 만들고 했던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야 저희 분과원들과 실행위원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공동대표 올해가 끝이 거든요.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역사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게 되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은 다 받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영상제작도 참여를 했는데, 두 군데 기관이 편차가 심했어요. 우리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눈은 높아졌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온라인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 있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콘텐츠 별로 너무 달라요. 저는 공예 쪽에 훨씬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예는 이 온라인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재료도 4명이 같이 쓰는 거로 준비해서 모듈수업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데 대면의 교육 콘텐츠로는 효과적이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별로 키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좀 어렵죠. 마을 교육 콘텐츠는 대면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왔던 거잖아요. 학교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이 시발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을 교육 강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온라인이 가능한 콘텐츠보다는 온라인이 안 되는 콘텐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온라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민:** 지금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잠깐 사이에라도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학교에서도 마을 강사 분들한테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가 방역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량 학생의 보호가 원칙이다 보니까 교육차원 자체 사업도 사실 이렇게 지침이

1단계면 교육청 안에서 시스템은 2단계에 준하게 시행이 되고 그래서 방송에서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 교육청을 실제로 3단계를 실시하다 보니까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어렵다는 거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돌봄이랑 방과후는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틀은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방과후는 마을 곳곳 기관에서 하교한 후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란 연계된 부분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각각의 소규모 마을 기관에서 언제나 상시적으로 마을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세현:**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는 저희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일상생활인 거라서 이 친구들은 어떨 때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마스크도 내린 상태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가끔 급식실에 가보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워요, 이 때만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면서, 반찬도 나눠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동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은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은 저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것 보다 아이들은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큰아이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수업들을 캔슬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학교를 만나와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1학년이면 선생님들도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원래는 1주면 끝날 게 한 달로 잡히니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저도 중학생 아이가 온라인으로 목공 수업을 받는데 그 시간은 집중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간은 정말 틀어놓고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컴퓨터 키고 누워있고 그러는데 목공은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했으면 좀 즐거울 수 있었겠지만 집에서 매일 화면만 보고 하다가 실제로 두드리고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완성도는 너무 떨어져요. 이 공예라는 걸 원래 저희가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실용적인 것도 있는데 이쁜 쓰레기 만들었다고 해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예품만이 아니고 과학실험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실험 같은 경우도 사실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분명 있거든요.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고 끝내면 안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마무리까지 책임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또래 배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한테 배우는 게 더 커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애들끼리 단절이 보여요.

**이은경:** 저는 제가 당사자로서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지에 말씀 드릴게요. 마스크를 통해서 이미 학교는 안가도 되는데 학원은 가야만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참 슬프고요.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얘기했다가 2일 만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온라인 교육이 과연 학

생들에게 전달력과 효과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교육을 가급적이면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재미가 없었는지 오프라인 수업에 가서 물어보면 애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문제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밑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온라인 교육들을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들어갈 때 앞에 입구에서부터 다 체온검사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마스크 쓰고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제외하고 소규모 공간에서 10명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돌봄 교육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아까 말씀이 책임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교육이 물론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 강사들은 나름 모두 적응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사들은 다 따라가야 해요. 이런 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 개인적으로 변화는 많이 했어요. 사실 온라인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도 했어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업하고 다음날 가서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네요. 또한 동아리 수업 재료 교안 모두 새로 다 세팅 해놨는데 동아리 수업이 없어졌다고 하면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학사 일정이 아침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임수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학교에 전화해서 학급자치활동이랑 전환기수업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조절을 늘렸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했던 시점에서 얼마가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815발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고, 수요조사 했던 것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 했던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몇 학급 신청해 주셨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 물어보면 다들 그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뜻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학교들에 연락을 해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저도, 상황이 일주일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른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막막해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센터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저도 매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상황을 전달하면서 무척 죄송하면서도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은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하자니 내년에 또 만약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선생님들이 다 오프라인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김미혜:** 저희 센터같은 경우도 요즘에 연락이 많이 오는 건 취소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던 학교에서 다시 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집담회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서로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업을 해주고자 노

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 또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두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온라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언젠가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건데, 그것이 갑자기 오게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해는 교육 환경도 변하게 될 건인데, 그 변화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혼란들을 정리해서 내년으로 가져가면 올해 겪었던 혼란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준비가 마을 강사만이 가진 콘텐츠를 계속 특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연:** 저는 미혜 선생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영상제작지원과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온·오프라인은 계속 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상황을 조정해가면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탄력적으로 키트를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하는 변화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1년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교육의 형태는 어떤 시기든 아이들이나 강사진이나 다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들이 서로 배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기존에 인식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함께 배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립과 단절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폭력은 없어졌지만 가정 내 폭력과 마을의 온라인 폭력 부분에 우리 마을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자발성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교육의 형태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움의 플랫폼을 곳곳에 만드는 것이 아마 방과후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대체물이 될 수도 있고 보완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출구를 고민해보면서 내년에 마을 곳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은평 마을 콘텐츠 발전 방향을 위한 마을 강사 및 교사 집담회를 마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시대’ 앞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과거 속의 추억이 되었고, 마스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두기를 넘어 사람들의 관계맺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경제와 사회, 문화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혁신활동들이 울 스톱되어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질서에 변화를 주고 마을(지역)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해 온 은평 마을 교육 콘텐츠 분야에도 예외 없이 맞닥뜨리고 있다.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마을 교육 콘텐츠 사업은 거의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던 마을 강사들은 심각한 좌절과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마을 콘텐츠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 강사 및 교사 집담회를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기획하여 다섯 차례 진행하였다. 사실 이 집담회는 총 11회로 기획되었으나 8월 13일 첫 대면 모임을 가진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가 9월 초에 온라인 집담회로 바뀌 4번의 모임을 추가로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집담회 전체 진행을 맡기로 하였기에 8월 중순 1주일간 모든 일정을 빼고 집담회에 전념하기로 하였는데, 갑작스런 일정 취

진행자 총평

최승국 나우엔 연구소 대표, 은평구 협치회 공동의장



소로 한 순간에 할 일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와 닿는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집담회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코로나 시대에 마을 콘텐츠 활동의 방향을 확인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짧은 기간에 기획된 집담회에 참가하겠다는 마을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었고, 한차례 취소 후 다시 시작한 4번의 온라인 집담회 참가자 모집이 하루 만에 마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마을 교육 콘텐츠 교사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마을 콘텐츠 활동에 대한 열정과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집담회에 참가하신 많은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와 여름 방학기간 동안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어떤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실제 어떤 분은 계획된 일정이 모두 취소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껴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상황이 모두 어려움에도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을 연계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점목시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부분 좌절하지 않고 마을 콘텐츠 교육의 꿈을 품고 있었고, 이를 이번 집담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정이 취소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이었으나 엄중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영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와 내년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마을 콘텐츠 교육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의 특성을 살려 가능하면 소규모 대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을 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실습을 병행해야 하기에 온라인보다 소규모 대면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콘텐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면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영상촬영이든 공간이 필요하다. 은평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공공공간이 민간영역보다 서둘러 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하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 다행히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또 다른 감염병은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영역이 최후까지 시민들의 활동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집담회는 마을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과도 한차례 진행되었다. 교사들도 코로나로 인해 마을 콘텐츠 교육이 중단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하반기엔 어떠한 형태로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콘텐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마을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예정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 당국을 설득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집담회를 통해 꼭 필요한 소통을 하였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는 물론이고 2021년 마을 교육 콘텐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은평구청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축되지 않고 콘텐츠 활동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방역과 더불어 공공의 공간을 가능한 유지하고 잘 활용하여 마을 콘텐츠를 포함한 지역사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위기일수록 거버넌스 역할이 더 중요하다.

## 코로나19와 마을 교육:

###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경계를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왔고 그럴 때마다 적응하며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적응력이었으며,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학습능력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적용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적응(adapt)의 영어 정의는 “You change your ideas or behaviour in order to deal with it successfully(어떤 것을 잘 다루기 위하여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새로운 세상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은 오히려 우리가 진화할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을 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4차례의 간담회 자료를 보고 제가 정리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을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학교에 짝사랑을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의 문 닫음에 크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을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 나름의 우리 마을 아동청소년의 삶을 통해 삶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 교육의 역할이 방과후 교육 지원을 넘어 2015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깨워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수업시수로 인정받았던 그 때 우리는 이미 이런 지금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젠 더 다양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움과 돌봄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을 교육이 학교 교육과 차별화를 가지고 지원기재로서가 아닌 독립기재로 학교교육과 협력하는 독립적인 주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을 강사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마을의 하나의 주요 자원으로서 마을 강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마을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을 교육의 주요 대상 중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직 학교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확장성을 높이고, 마을 강사가 학교 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지, 강의 외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을 강사가 학습의 전달자가 아닌 돌봄뿐 아니라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마을 어른으로서 함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의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닌 삶을 배우는 곳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 논의에서 마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학교의 학생 돌봄·보호에 대한 역할 요구가 재조명되고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필요하다고 의제를 던지고 있습니다(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0). 이는 학교에서 돌봄과 보호영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가 학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마을과 함께 나눈다면 아이들은 학교 뿐 아니라 어디서든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마을 강사의 역할이 단지 콘텐츠 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 학습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생활습관이나 여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어 아동청소년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환경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아동청소년의 돌봄기능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목표 중심으로 협력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교육사회학’수업에서 학생들과 팬데믹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배움보다 선행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아이들이 수면시간 식습관 여가생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변화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이든 집이든 어디든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잘 키울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어느 범위이고 복지는 어느 범위이고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어떻게 교육과 복지관련 범 부처 간 논의뿐 아니라 민간도 함께 아이들이 삶을 팬데믹 시대에 일상적인 삶으로 적응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존의 편견과 틀을 깨야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3회로 시행되었던 정책 TF회의에서 돌봄이나 안전을 복지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며 교육부 정책과 서울혁신교육지구의 정책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2020년 8월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방역·학습·돌봄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방역·학습·돌봄을 3대 교육안전망으로 규정하고 돌봄 안전망에 관련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방역 안전

망에서는 물리적인 방역체계 강화 외에 심리방역 체계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을에서 아이들을 깨워주고 제시간에 수업을 참여하게 하고 집밖에서 어려운 활동을 비대면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은 어렵고, 나는 온라인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도 학생도 저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어도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보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배우고 적응하며 이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며, 이를 위해 마을의 어른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른의 변화에 시급한 것으로 저는 마을의 온라인 교육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면, 누구의 의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간담회 내용을 읽으면서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의 조직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학교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웹캠이 있고 판서가 가능하며, 화면촬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이 있는 노트북을 교수들에게 대여 해주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구매하지는 않고 기기를 대여한 형태이지요. 또한, 어떻게 줌(ZOOM)과 웨벡스(Webex), google class 등의 다양한 실시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매뉴얼 및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불완전 하기는 하나 비대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을도 마을 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기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사용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매뉴얼에 의거한 관련 활용지원 수업이 열려야 합니다. 사용해본 사람들의 경험담과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 강사 및 마을 교육을 위한 허브가 필요합니다. 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하나의 플랫폼이자, 마을 강사들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 활용교육을 지원하거나 혹은 교육청에서 배부된 자료가 공유가능하다면 마을 강사들도 함께 공유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마을 교육 안에서 연대가 요구됩니다. 기존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네트워크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운영방식과 기기사용을 서로 알려주고 공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이 아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사용한 것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되고 자료가 한 곳으로 모여 공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요구됩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 여러 지식을 관리하는 것을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마을 안의 지식들이 나만 알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공유되고 수렴되어 환류 되어야 합니다. 마을 교육의 허브를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라고 하더라도 모든 마을 강사 및 마을 교육 관련자들을 코칭해주거나 교육 이후 한명씩 무엇을 해주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관이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연습이 필요한 누군가를

코칭해주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 중 또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누군가의 코칭을 해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생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강사는 대면과 비대면 혹은 혼합된 형태로든 상황에 맞춘 강의계획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진 강사들끼리 강의계획서를 공유하거나 아님 비대면 강의계획서를 만든 사람의 노하우를 듣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구조화 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질 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19보다 기후환경의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 우리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나 홍수나 다른 경우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에 맞추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확장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UNESCO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이 최고의 교육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꽃길만 우리에게 놓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와도 때에 따라 우산도 펴고 롱패딩도 입어가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산도 장만하고 긴 롱패딩과 그에 맞는 모자도 구입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은평 마을 교육이 더 굳건해지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교육의 결과도 보장되는 교육이 마을 안에서 학교와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더 좋은 마을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 참고자료

-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2020.07.30.)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협의 추진. 보도자료 2020년 7월 30일자.
- 경기도교육연구원(2020). 코로나19와 교육:학교구성원이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 \* 별첨

## 집담회 참여 마을 강사 명단

강소영	김영애	신윤경	이인순
강지숙	김은희	양선영	이지안
강진선	김은희	양지애	이화영
고미경	김인정	오세현	임수자
김기창	김현령	오진화	전성미
김미정	남기은	이민아	정영순
김민상	두숙영	이옥희	조아라
김보람	박혜림	이인순	최동순
김선영	백향은	오세현	최문주
김선주	송연희	오진화	한성순
김연옥	신성은	이민아	한은주
김영선	신성희	이옥희	홍남경

## 마을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다

-2020년 제5회 은평상상공퍼런스 2섹션

<b>일시</b>	2020년 9월 9일 15:00~18:00
<b>장소</b>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의 숲
<b>진행 및 주관</b>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회자** 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발제자** 강양숙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장  
강화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부미경 사단법인 은평상상 이사장  
박지현 초록길도서관 관장  
김세희 꿈꾸는다락방 대표  
임영은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은평에서 마을과 학교를 함께 이야기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속에서 교육 콘텐츠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교육과 관련된 중간 기관들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마을 교육 영역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제5회 은평상상공퍼런스 네 번째 테이블의 진행을 맡은 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이 어찌면 마을 교육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을 교육의 주역이 되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의 마을 교육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마을 교육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발제1 생각하는 힘을 가진 은평 청소년

첫 번째 발제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센터장이자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강양숙 센터장이 맡았다. 강양숙 센터장은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의 꿈’에 대해 입을 열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는 것,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지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꿈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2013년 은평구립으로는 처음으로 신나는애프터센터가 청소년 센터로써 문을 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은평 지역에서는 어린이, 아동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렸지만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일컬어지는 세대는 없었다. 지역 사회는 아이들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이 아닌 삶을 고민하는 ‘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 2015년에 창립한 은아청은 청소년과 동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는 파트너십을 갖고자 했다. 이에 은아청의 비전은 은평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은아청이 서울혁신교육 공모사업 TF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은아청과 혁신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행정이 가진 큰 예산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혁신한다는 목표로 쓰이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강양숙 센터장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민간과 행정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은아청은 2015년과 2016년, 총 2년 정도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몰두하다 지금은 중심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은아청은 학생으로서의 삶 외에도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청소년의 삶이 있음을 조명하여 해당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은아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청소년 개별 성장에 초점을 맞춘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내 각 단위가 자기 활동에 전문성을 살리고 그것들을 서로 묶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매년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대회를 열어 활동가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창립 초기에 비해 조금 위축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창립 정신을 잊지 않고 다시금 '은평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질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

해 힘쓰고 목표를 곧추 세우겠다고 말했다.

## **발제2**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선택인가, 필수인가?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화연 센터장이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강화연 센터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5년 동안 은평에서 어떻게 청소년에게 인권과 노동인권을 교육했는지,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노동 현실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는 본 발제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으로 다루었다.

그는 '인권과 노동은 분리할 수 없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다.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노동법에 있는 법적 권리를 전달해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노동법은 물론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전달하기도 한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인권과 노동인권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으며, 1년에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하고 또 많은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화연 센터장은 '인권'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때 '남을 배려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를 청소년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문제'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그와 센터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적시했다. 세계노동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은 노동권 지수, 산재사망률 등에서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망하거나 감정노동

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한 경험을 들어 현재 청소년들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것이 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든 기존 세대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이전 세대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확산, 팬데믹, 기후위기 등이 이어지며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기서 우리의 현명한 대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협동과 연대라고 지적했다. 협동과 연대는 팬데믹과 대공황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일자리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은평의 노동과 인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었다. 강화연 센터장은 은평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교육활동가가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더 많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하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동가들이 서로 확인하고 고민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권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 청년들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했던 최근 사례를 들며,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협동과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마을에서 함께 인권교육을 만들어가고 고민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비추었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성소수자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인권 교육이 아닌, 모두가 연결되는 인권 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발제3 10년 후, 우리 살아있을까?

세 번째로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1.5도기후시민교육연대 소속의 임영은 씨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발제에서 임영은 씨는 교육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였다. 스스로 ‘교육, 특히 환경의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에어컨 사용과 전기, 인스턴트 개발과 배달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 여전히 환경파괴적인 소비를 종용하고 있다. 세세히 분별하지 않으면 환경적이지 않은 것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환경적인 물품만 가져서 산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들보다 가져서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재화를 찍어내고 있다.

임영은 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기력하게 있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은 다른 교육협동조합들과 함께 교육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교육문화 동아리를 갖고 스터디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고 있다. 임영은 씨는 스터디에서 ‘행동하는 교육’을 고민하며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 학교에서 진행했던 진로 교육 사례를 이야기하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에 대한 답으로 55%가 환경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었다고 말했다. 인권과 기술 혁신, 심리 문제 등 기본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이처럼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의 감수성과 성숙함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외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세번 스즈키, 그레타 툰베리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으며, 오늘날처럼 탄소배출을 계속 한다면 남아있는 탄소 예산마저 8년 반 만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 예측했다. 대통령과 직접 싸웠던 그레타 툰베리처럼,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아이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에 탄식을 하며,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제적인 부를 쟁취하고 소유와 착취를 위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과 더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어른들이 누리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세대가 져야 하는 현상에 대한 가혹함을 이어서 얘기하기도 했다. 그가 든 환경 파괴 결과의 예시로는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되어 이번 코로나19까지 이어진 전염병, 인간의 편의와 발전을 위한 동물의 영역과 아마존 등의 무차별적 개발, 녹아내리는 빙하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환경 문제를 모든 방면에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을 하루에 하나씩 실행하기로 다짐했는데, 모두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진행하거나 제안했던 챌린지로 비닐 없이 장보기, 못 쓰는 그림책으로 팝업북 만들기과 같은 업사이클링, 은평구에서 만드는 포스터는 코팅 없이 만들기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발제4 마을 교육의 미래와 도서관의 역할

이어서 초록길도서관 박지현 관장이 작은 도서관의 현재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지현 관장은 은평작은마을도서관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며 도서관을 처음 만들었던 당시의 마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코로나 시대에 작은도서관들이 과연 필요할지 나아가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지현 관장은 혁신교육이란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이 마을과 공동체로 확대되는 가치를 지향하고 실제로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며 발제의 서두를 열었다. 삶의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며 학부모와 이웃, 청소년 스스로가 교사 혹은 학생-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마을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은평구의 작은도서관들은 수년 간 혁신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초록길도서관은 3년 동안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으로 방과후 교실을 열기도 했다. 박지현 관장은 작은도서관 운동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바로 마을 교육이기에, 작은도서관과 마을 교육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록길도서관을 홍보하거나 설명할 때, ‘방과후 아이들의 아지트’, ‘배움터이자 놀이터’,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작은 평생학습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정보와 지식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면, 작은도서관은 관계를 통해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교육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명감을 설명하는 데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해도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집단적이고 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으리라고 말했다. 교사 위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습 주체가 스스로 능동적 학습을 할 수 있게 교육의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도서관의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지현 관장이 강조한 작은도서관만의 고유한 기능이란 ‘관계 지향’과 ‘소규모성’이었다.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은 2.5단계로 격상되어서야 휴관 조치가 떨어졌다. 그만큼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 정도가 적고, 경로를 추적하기에도 쉽다. 박지현 관장은 앞으로도 집단주의적인 문화나 대규모 강의는 지양하고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쿠바의 촘촘한 커뮤니티를 예시로 들었다. 그가 소개한 기사에는 쿠바의 현장을 들여다보았을 때, 관계가 살아 있는 커뮤니티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감염이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범위는 모든 타인으로 넓혀지는데, 모두가 모두를 아는 동네에서는 정보의 공백이 생기기에는 서로의 삶이 촘촘하게 얹혀 있어 바이러스의 익명성이 제거된다. 이는 공공의 정보력이 좋아지고 공포에 뿌리 내린 혐오를 막아주며 커뮤니티가 사람들의 건강을 블록 단위로 묶어주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은평에서도 먹거리, 병원, 모임, 놀이터가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지현 관장의 의견이었다. 촘촘한 관계망,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로 형성된 작은 공동체는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그는 ‘작은도서관의 미래는 마을 교육의 미래다’라는 결론을 전하며 민간 영역에도 공공 못지않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서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발제5 포스트 코로나19, 학교밖 청소년 변화와 준비

다섯 번째 발제로 꿈꾸는다락방 김세희 대표가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현안을 밝히고 이에 따른 준비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세희 대표는 먼저 코로나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와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현상 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상담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청소년이 느끼는 변화 중 첫 번째는 불안과 초조라고 한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영향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교육 불평등’이었다고 김세희 대표는 전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빈곤층이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이 시점에서 발생한 교육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질 것이라고 김세희 대표는 예측했다.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단체들이 이러한 교육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본래에는 5년에 걸쳐 이



뤄져야 하는 정도의 속도이며, 그래서 더욱 청소년이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이 강세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김세희 대표는 이런 면에서 많은 학교 밖 기관, 사회복지 기관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이용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비대면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되리라 주장했다. 또한 게임이나 웹툰 같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될 시장이 생기는 데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욕구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 말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 때문에 기관을 찾을 수 없는 지금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동안 기관의 역할을 잘 해오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했다.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과 전반적인 내부점검이 기관들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 즉 미디어와 미래 콘텐츠에 걸맞은 변화도 필수일 것이다. 김세희 대표는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발제를 마쳤다.

#### **발제6** 마을 교육은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은평상상 부미경 이사장이 마을 교육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시작과 함께, 그는 집담회 시점에서 얼마 전 일어났던 의사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만화와 쿠바의 의료 사례를 비교했

다. 국내 의사파업 관련 만화에서는 전문가 엘리트 집단의 무의식,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능력자가 된다는 전제가 드러나 화제가 되었다. 반면 쿠바는 선진국에 비해 의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미국의 2배이며 ‘의학’과 ‘인간성’을 전문성으로 요구하고 가족주의로서의 연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쿠바의 경우 커뮤니티로써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주치의 제도로 선진국보다도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시를 설명하며, 부미경 이사장은 교육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경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선 표했으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을과 지역이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마을기록학교가 은평에서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이 대상이었다. 여기서 부미경 이사장은 3학년 학생들에 비해 6학년 학생들은 대다수가 주눅들어있었으며 집중도도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이 갈수록 경쟁을 강요하고 아이들의 개성과 자존감을 떨어뜨린 것이다.

민주주의 시민이란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과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능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강한 자아를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부미경 이사장의 의견이었다. 마을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학교 자치나 청소년 자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즉 서로 토론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통하는 훈련에 대한 바람도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마을에 대한 희망 사항을 이야기했다. 그는 온라인 사각 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려하며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 돌봄, 그리고 교육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코로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의 인프라와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마을 교육과 청소년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공동의 플랫폼, 학습모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발제를 끝마쳤다.

### 마을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

생중계 발제가 끝난 후,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발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으며 발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학교나 지역과 노동 인권 교육이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운가?

첫 번째로 학교 제도 안에서의 학사 일정이 빠듯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 일정을 내기 어려워하신다. 세 번째로는 예산에 의해 좌우되는 교육 시간 등이 있다.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부족이다. 학교에 인권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은데,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다. 인권 교육은 일상에서, 마을에서도 이뤄져야 할 텐데, 이러한 강의를 넘어서 교육이 이뤄지려면 서로 충분히 피드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강화연 센터장

### 꿈꾸는다락방의 고민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현재 꿈꾸는다락방은 코로나 시대에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디어와 영상 분야를 위해 공간을 스튜디오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리고 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상담 진행을 위해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1:1 상담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고민으로는 서울 중심이 아닌 방식을 생각 중이다. 소규모로 한 달에서 두 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김세희 대표

## 은아청에서는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은아청은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활동가와 정책 중심으로 고민해왔다면, 다시 아동과 청소년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양숙 센터장

## 작은도서관을 이야기 하며 관계성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작은도서관은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을 고집어내는 등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관계망을 통해 학습하는 분위기가 작은도서관들은 이미 만들어졌다.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지현 관장

## 기후와 관련된 자발적인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지?

아이들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와 동아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마을과 연계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들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영은 이사장

## 마을 교육에 있어서의 고민 중 하나인 방역, 어떤 해결 지점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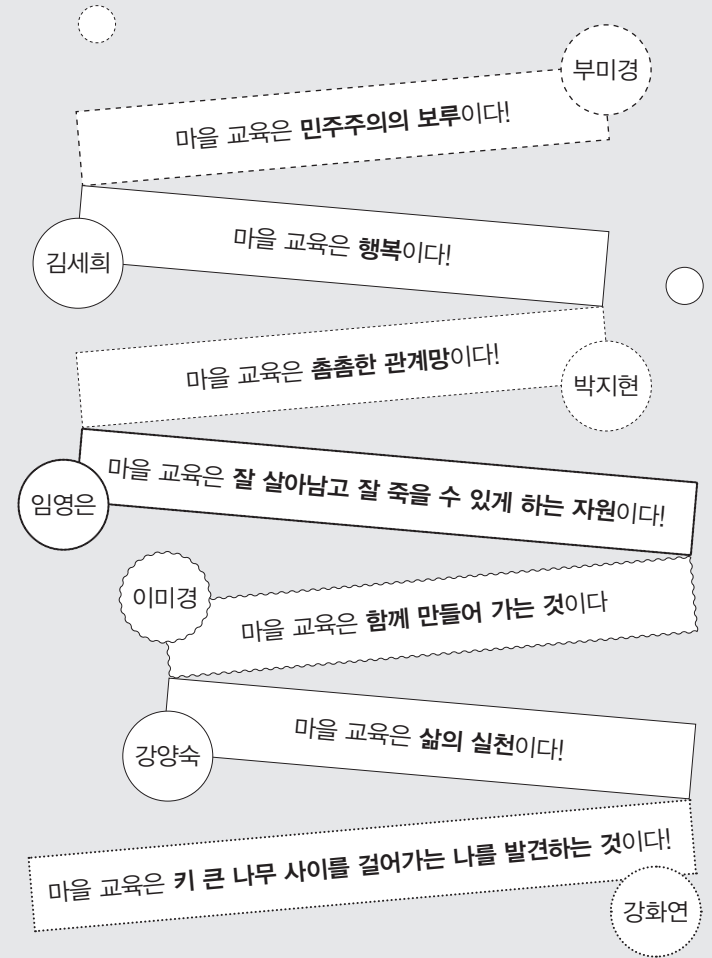
오히려 마을 안에서 안전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는 관계

망 안에 있는 우리들, 즉 지역의 기관에는 운영자에게 전적인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관계망 속에서 곳곳의 거점을 두고 소규모 대면 모임을 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부미경 이사장

## 교육계 내에서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에 특정 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 교사 연수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강화연 센터장

함께 정의해보는 마을 교육,  
마을 교육은 ○○이다.





with COVID-19

## 은평 교육 콘텐츠,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다

-은평구 교사 및 마을 강사 집담회 자료집

발행일 | 2020. 12. 30.

발행처 |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발행인 | 이미경

기획 | 김미혜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50, 은평마을속학교

(롯데몰 은평점 앞 승객대기동 1)

홈페이지 | <https://www.epafterschool.com>

E-mail | epeducon@daum.net

대표번호 | 02-351-3099

팩스번호 | 02-305-1199

편집 및 디자인 | 권순미디자인

\*2020년 은평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에 참여하신

마을 강사님의 프로그램 활동 사진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